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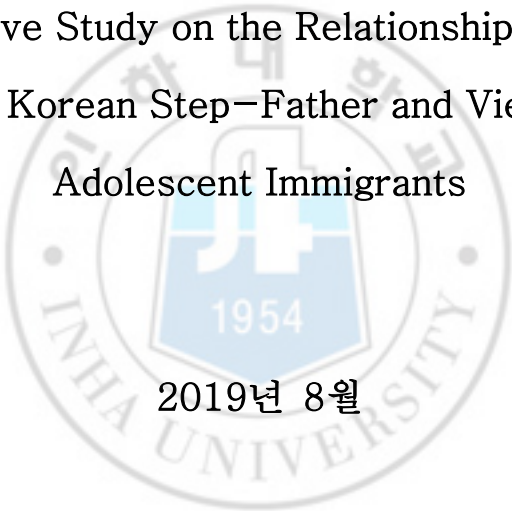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between Korean Step-Father and Vietnamese  
Adolescent Immigrants

The logo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seal.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blue and white design, including the year '1954'. The text 'INHA UNIVERSITY' is written around the perimeter of the seal.

2019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주영은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between Korean Step-Father and Vietnamese  
Adolescent Immigrants



2019년 8월

지도교수 김 지 훈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주영은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9년 8월



주심 (인)

부심 (인)

위원 (인)

## 국문초록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질적 연구

주영은

이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으나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베트남에서의 친부모님의 이혼과 남겨진 자녀로서의 유소년기(Left behind childhood), 한국에서 새로 형성한 가족과의 관계와 한국에서의 삶 대해 탐구하였다. 특히,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탐구하여 가족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버지와 자신의 삶속에서의 한국인 새아버지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베트남 출신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에서 친부모님의 이혼과 친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복합적 가족(complex family)을 경험하며, 친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한국인 새아버지를 둔 중도입국 청소년’이 되면서 전반적인 생활과 가족관계에 또 한번의 변동을 경험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재혼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으로부터의 이주제안과 베트남에서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친부모의 이혼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남겨져 실직적으로 부모 모두 없고, 조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생활을 하는 복합가족을 경험하며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베트남에 남겨진 자녀로서의 유소년기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친아버지 부재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며,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친어머니의 한국으로의 이주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거나, 베트남에서의 삶, 조부모와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등 자신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며 한국으로의 이주를 미루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친어머니와의 재결합’, ‘임신한 엄마를 돕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으로 이주를 하였다.

둘째,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상당한 정도의 자발성, 능동성을 띤 주체로서의 행위를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행위와 법적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국제 재혼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인 새아버지는 한국 체류 안정과 가족 내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첫’ 만남은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베트남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자신의 새 아버지’와 ‘엄마의 새 배우자’로 인식한다. 입국 초기 연구참여자들은 공통 언어 부재를 극복하면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며, 이후 한국어를 구사하고, 언어 이외에 말걸기, 법적 가족이 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며 ‘새로운 친아빠’와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래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과 계부와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가 삶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새아버지’, ‘미래를 위해 함께 하는 새아버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가족으로 편입되는 입양과 한국 시민권 취득 과정을 통해 한국 사람이 된다. 특히, 입양 과정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입양 동의가 있어야 중도입국 청소년을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법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족 내에서 자녀로서 인정을 받아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다.

셋째, 학령기에 해당하는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학교는 한국인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는 장이다.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언어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학교 생활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또래 관계’와 ‘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다. 학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또래로부터 첫 환대를 받지만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무관심 혹은 차별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이주 결정이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던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관계를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8명의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국제 재혼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 관계, 다문화 가정, 청소년

#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ii
표 목 차.....	vi
<b>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 .....	1
<b>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b> .....	5
1. 이주 청소년의 이주경험 · 가족관계와 한국의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	5
2.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형성.....	8
<b>III. 연구방법</b> .....	10
1. 질적 연구 방법.....	10
2. 자료수집.....	11
3. 연구참여자의 특성.....	12
<b>IV.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이주 전 베트남에서의 삶</b> .....	15
1. 베트남에서의 가족관계 및 친부모님와의 관계 유형.....	15
1.1 남겨진 자녀로서의 유소년기 (Left behind childhood)와 복합가족 경험.....	15
1.2 친아버지와의 관계.....	19
1.3 친어머니와의 관계.....	22
2.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과정.....	25
<b>V. 베트남 중도입국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형성</b> .....	27
1.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첫' 만남 : 나의 새아버지, 엄마의 새 배우자.....	28

2.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 형성 과정 .....	30
2.1 입국 초기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 언어 장벽 넘기 .....	30
2.2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 한국어 구사와 말걸기, 법적 가족 되기 .....	32
2.3 관계 형성의 걸림돌 .....	34
3. 한국인 새아버지의 존재 및 의미 .....	37
3.1 새로운 '친아빠' .....	37
3.2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새아버지' .....	39
3.3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새아버지' .....	40
4. 새로운 가족의 의미 : 새로운 시작 .....	41
<b>VI.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동일시(Identification) 및 자기이해(Self- understanding) .....</b>	<b>42</b>
1. '한국사람되기' .....	42
1.1 한국 가족으로의 편입 .....	43
1.2 한국인 새 아버지의 입양을 통해 재혼자녀로서 한국 시민권 취득... .....	46
1.3 한국시민권을 취득한 친어머니의 자녀로서 한국 시민권 취득 .....	47
2. '두 이름 갖기' .....	49
3. '한국인처럼 살아가기' .....	52
3.1 한국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 및 두려움 .....	52
3.2 첫 환대와 언어 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무관심 .....	53
3.3 또래관계에서 차별과 극복 .....	54
3.4 나를 도와주는 새 친구에 대한 고마움 .....	56



3.5 학교 내 문화적 각본.....	57
4. 앞으로의 진로.....	58
<b>VII. 결론.....</b>	<b>62</b>
참고문헌.....	<b>67</b>
Abstract .....	71
부    록 .....	74



#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 .....13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감정을 느꼈거든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나는 나를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를 알아주고 근데 알아주는데도 모른 척해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울컥 그니까 눈물이 날 뻔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존재가 물론 내가 힘들었지만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그렇지만 근데 그 존재 있기에 그래도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니까. (최지우)

한국인 새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연구 참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지우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인천의 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서지원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에서 만난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2명의 이부동생과 7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한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지우는 현재 한국 시민권뿐만 아니라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A 고등학교 성인반<sup>1</sup>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 존재 자체에 힘들어하였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지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 준 존재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우와 같은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인 새아버지와 새로 시작된 가족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한국 사회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다수는 외국 출생자로, 국제 재혼가족의 청소년 자녀이다. 그러나 대다수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 ‘외국인 가정 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서덕희, 2003). 이는 ‘다문화’라는 단일한 범주 내에서 서로 다른 가족 배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삶의 여건이 매우 상이한 이질적인 집단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전은희, 2012, p.84). 이질적인 집단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이면의 이유는 노동이주 이후에 재혼을 한 외국 출신 어머니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자녀와 이주과정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다(박혜준, 2008).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혜준, 2008;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고남정, 오성배, 2016; 고은혜, 배상률, 2017)

이주 과정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 역시 매우 중요한 맥락이며, 특

---

1) 인천 소재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학교

히 후자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국제결혼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의 한국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단초라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시작한다. 새로운 나라로의 이주,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국제결혼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과 이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학령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한국 교육에 편입되면서 한국 생활을 하게 된다.

국제 재혼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이주와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되는 여러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주를 통해 그간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과 분리되고, 가족과 재결합하게 되면서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Suarez-Orozco, 2002; 박혜준, 2008).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2016: 64)에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이들은 취직, 진학 등 진로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건 1순위를 행복한 가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렇듯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이주 후 적응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며 이들 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가족관계,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여타 다른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 혹은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과 달리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의 맥락과 가족의 맥락이 다층적으로 얽혀있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친어머니의 이주를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생활환경의 변화와 언어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가족 안에서 국제재혼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사회적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새아버지의 입양을 통한 법적 관계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이주를 통해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이 2012년 말 2,296명이었는데 2016년 말 3,316명으로 44.4%가 증가하였다 (국가통계포털 20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면 학교 내 중도입국 자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11년 2,540명으로 시작하여 2018년 8,320 명의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 학교로 편입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재혼은 1,864건으로 전체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

의 혼인의 11.2% 차지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8). 이와 같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국제 재혼가족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가족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를 통해 형성된 가족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제 재혼 중도입국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의 경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결혼이주여성과의 혼인(재혼)과 배우자의 전혼자녀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인 새아버지 역할의 어려움이 국제 재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관계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한 국내 기존 연구들도 이들의 가족관계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다루고 있지만 이들의 가족의 삶이나 아버지의 역할,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 의미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다. 때문에 한국 사회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이루는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자녀의 경험,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나(박혜준, 2008), 결혼 이주 가정의 한국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을 하나의 이주 배경 청소년으로 다루고 있다(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둘째, 한국인 새아버지를 포함한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관심은 부차적인 수준에 그쳐있다. 예를 들어, 방문지도사와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고 있거나(정희정, 김소연, 2014),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요인 중 하나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2). 학교 재학여부에 따른 한국어 능력(고남정, 오성배, 2016)과 중도입국청소년과 부모님의 입국 전 별거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변화하는데(고은혜, 배상률, 2017) 한국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직접적인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의 새 가족 경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족 경험에 초점을 두는 연구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 중국인 학생이라는 점에 한계를 가진다(엄명용, 2013).

이 연구는 최근 부모와의 동반 입국 비율이 높은 중국의 중도입국 청소년과는 달리 국제 재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 한국으로의 이주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관계가 중요한 변수이자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 재혼가정의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관계를 구분하여 이들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과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이 주요 행위자로서 주어진 가족이라는 장 안에서 이주 결정 과정, 가족 재결합 및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특징,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입양이 될 때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입양 절차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이주 그리고 한국인 새 가족으로의 편입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 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목소리와 역할은 수동적인 것인가?

이 가설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띄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의 성격이 비자발적일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과는 달리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새 가족으로의 편입 과정 역시 상당한 정도의 자발성, 능동성을 띤 주체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의 이주 결정이 대개 한국인 새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형성하게 됨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어떻게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인 새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의 행위가 더 두드러진다. 한국인 새아버지의 경우 입양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보다 더 양육에 참여하는 등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 내에 이주자로서 위치를 설정하고,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 아래 중도입국 청소년의 행위가 어떻게 협상되며 실천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들이 한국인 새 아버지와 관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한국 사회 적용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에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아버지와 관계에서 보여주는 의미에 대한 이해의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새아버지에게 가족 내 관계를 향상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러

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둘째,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족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버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 속에서의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 가족관계가 한국에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다음 절에서는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와 가족관계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형성 과정과 이들의 입장에서 한국인 아버지의 존재와 가족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청소년 이주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 경험과 가족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 형성을 다룬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가족 내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인 새아버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이 이주자로서 한국에서의 안정된 체류를 하게 도와주고, 학교로의 원활한 진학 및 한국생활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 1. 이주 청소년의 이주경험 · 가족관계와 한국의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

먼저, 어머니의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청소년기의 이주를 다루는 연구들은 모국 문화에서 사회화되고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청소년기에 이주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아를 형성하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넓은 맥

락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Moore & Barker, 2012). 미국 맥락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녀로 부모의 선이주 후 자녀가 이주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언어와 관습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각본(Cultural Script)을 박탈 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Suarez-Orzco, 2000). 대다수의 청소년이 본인이 이주과정에서 부모님의 이주로 가족구조의 변화, 분리 등의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들이 이주 후 경험과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주 전 청소년의 주보호자와 부모님의 삼각관계, 이주에 대한 양가적 감정과 같이 여러 층위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Suarez-Orzco, 2002). 특히, 부모로부터의 분리기간과 주양육자의 변화는 이주 후 삶의 만족도를 낮추나, 부모와의 재결합과정을 더 어렵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Smith, Lalonde, Johnson, 2004; 고은혜, 배상률, 2017). 구체적으로 비단 서구 이주청소년의 연구 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입국하는 부모 동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성별과 연령, 입국 자발성, 입국 시기와 사회적 관계와 같은 이주 이전의 경험과 이주 이후의 모든 경험들이 새로운 환경 적응에 영향을 주며, 이는 가족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2). 더불어 한국적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언어의 어려움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박혜준, 2008).

이렇듯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주어진 과업과 이주 과정이 가족과 재결합하여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하며, 새로운 가족구성원과의 만남이 이들의 가족관계를 더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기본적으로 재혼가족이 가지는 특성을 내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재혼가족은 계부모-계자녀 관계, 이복 및 이부형제와 같은 다양한 형제관계, 계조부모와 같이 초혼가족에서 볼 수 없는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Visher & Visher, 1996)에서 재혼가족 청소년은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로 초혼핵가족 청소년과 달리 다른 층위에서 정체감 혼란을 겪으며, 가족 내 친부모와 계부모의 존재로 상실감, 충성심 갈등, 통제력 부족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가족 내 혼란을 경험하는 동시에 거부에 대한 불안감,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다(임춘희, 2006).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려는 특성을 가진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Collins & Repinski, 1994)한다는 점에서, 이주가정 또는 재혼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재혼가정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전혼자녀가 포함된 복합 재혼가정은 더욱 갈등을 겪게 된다고 알



려져 있다(김효순, 2010; 장인실 외, 2012; 안지영, 김지훈, 2014). 재혼가족 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 변화 경험에 따른 혼란과 재혼가족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며, 혼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김효순, 200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부모를 대상으로 새부모역할을 연구한 김효순, 하춘광(2011)에 의하면 재혼 초기 부모와 새자녀 사이에 분명하지 않은 가족경계와 친밀감이 부족하며, 새부모에 대한 권위와 권한이 부재하여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계부모는 재혼가족 청소년이 새로운 가족 내 적응 과정이 힘든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효순, 2007). 이처럼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재혼가족이 가지는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외국인가정 자녀와 초혼가족인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와 가족관계를 구분하여 한국으로의 이주과정과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이주가정이 가진 문화적 차이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은 문화적 배경, 생활습관 및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송민경, 2014). 다문화가족 재혼남성의 결혼생활을 살펴 본 임춘희(2014)는 초혼의 이주여성 보다 재혼의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재혼을 한 경우 이주여성의 전혼자녀와 함께 가족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uarez-Orzco(2002)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족과의 기다려왔던 만남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일 지 몰라도 새로운 형제자매 혹은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낯섬과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은 ‘반대 감정이 공존하는 장’을 의미한다(Suarez-Orzco, 2002).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족이란 장기간 분리되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어머니와의 낯선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박혜준, 2008; 엄명용, 2013),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족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한국인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장이다(정희정, 김소연, 2014).

지금까지의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와 같이 학교와 정체성이 매우 관련이 깊음을 시사한다. 전은희(2012)는 다문화라는 범주적 차이에 의해 고유한 차이를 가진 이주 학생들의 특성이 가려진 채 단순히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김기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학생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또래 친구들로부터 차별적인 시선을 느낄 때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담론이 수업시간에 부정적으로 비쳤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또래에게 어떻게 내비쳐야

할지 몰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이 한국인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파악한 박선웅, 우현정(2013)의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다양한 한국인 되기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또래에 의한 사회문화적 편견과 학교 내에서 규정된 다문화라는 틀 안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규정되고, 그 안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으로 온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살펴본 이병철, 송다영(2011)의 연구도 중도입국 청소년을 이해해주는 또래 경험이 한국문화와 긍정적인 적응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회연결망을 살펴본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제와 새로운 환경에 자신들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이주자로서의 과제를 지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은 매우 중요한 환경임을 강조한다(정희정, 김소연, 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 경험, 이혼과 재혼이라는 가족 재구성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형성된 불안정한 가족관계는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또래관계와의 갈등 및 중도탈락과 같은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또한 한국의 ‘중도입국’ 개념이 교육부 측면에서 다루어지면서 주로 학교 내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당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인 새아버지의 정서적 지지가 한국어 능력과 같이 사회적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남정, 오성배, 2016). 이러한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학교로의 편입이 중요함을 나타내지만 또한 동시에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한다.

## 2.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형성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거나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두드러진다(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의 ‘자녀’ 이기 이전에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자이며, 이들은 친어머니의 재혼을 이유로 입국초기 외국국적을 가진 채 한국으로 입국한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결혼비자 형태로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방문동거(F-1)로 한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류신분 유지의 어려움과 비자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의 입양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국적법 제7조 1항 1호).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부, 출생증명서, 친권과 양육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서류 혹은 생부의 동의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자로서의 위치를 설정할 때 한국인 새아버지와 갈등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중도입국 청소년이 입국을 했지만 입양 과정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정희정, 김소연, 2014). 더불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입양 부모들에 대한 교육 절차, 법원에서 나오는 실태조사 과정을 모두 걸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출신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없을 경우 언어의 장벽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된다.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본 조혜영(2012,p.321)의 연구에서 실제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지속적이고 원활하지 못한 소통의 부재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이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지 못한 채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문화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며(고남정, 오성배, 2016), 만일 그러하다면, 특히 입국 초기에는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인 새아버지 역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더욱 가족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서도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인 새아버지 역시 일반적인 국제결혼 남성과 다르게 외국인 여성과 혼인(재혼)하여 외국 출생의 전혼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엄명용, 2013). 중도입국 청소년을 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고, 재혼 후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살펴본 송민경(2014)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 자신의 이혼과 재혼이 스스로의 삶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한편, 재혼을 통해 이주여성은 자신의 전혼자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 줄 남성에게 기대를 한다. 이주여성이 기대하는 한국인 새아버지 역할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이주여성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송민경, 2014). 이주 과정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삶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실질적인 역할도 존재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의 입국과 입양하는 과정에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

나 학업 준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역할의 비중이 크다(조혜영, 2012). 이처럼 한국인 새아버지 경우에는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송민경, 2014) 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어가 미흡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전혼자녀의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역할에 부담을 가지기도 한다 (유순화, 정애리, 2017).

특히,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응에 있어 중요한 자원임을 주장한다(양계민, 조혜영, 2012; 송민경, 2014; 고은혜, 배상률,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가족과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그로 인해 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관계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타난다(박혜준, 2008; 박선웅, 우현정, 2013). 또한 사회적 배경과는 독립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일수록 정서적 지지를 해줄수록 사회적응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고남정, 오성배, 2016)는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주자로서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얽혀있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있다.

이제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계가 각 사례에 따라 관계가 나타날 뿐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사회에서 이주자로서, 가족 내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변화된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비치는 한계를 지닌다.

### III. 연구방법

#### 1. 질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인 새아버지를 둔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친어머니를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이 이주과정, 한국 정착,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편입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입양, 한국 생활 속에서 그들 자신이 한국과 가족 내에서 직접 겪고 있는 실생활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실시한 매크래컨의 장시간 면담(The Long Interview)은 연구참여자와 함께 하는 인터뷰 시간에 최대한의 가치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생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우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면담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담아 낼 수 있었다. 분석을 위해 인터뷰 후 전사한 자료를 숙고하며 읽고, 유의미한 주제를 찾아나갔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면서 연구 문제 및 이론적 배경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난 양상을 중점적으로 묶어나갔다. 개별 사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사례가 증가할수록 사례 간에서도 범주화 가능한 코딩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내고, 선행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서로 다른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면담’을 분석하기 위해 매크래컨(2005)이 제시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전사본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관찰을 확인하기 위해 두 번 검토를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전사본과 주제와 연관된 문헌에서 제시하는 근거에 기반을 두어 기술적·해석적인 예비 범주로 발전시켜 나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패턴 부호를 발전시키기 위해 예비 부호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진술에 반응하여 만들어진 응답자들의 언급을 탐색하여 기본적인 주제들을 결정하고, 주제 간 일치와 차이점을 탐색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각 중도입국 청소년과 새아버지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가로지르는 확인된 주제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서로 다른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탐색하였다. 더불어,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가 기록한 현장 메모, 봉사 일지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선정해 갔다. 연구 참여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험, 아이디어, 근심, 잘못, 혼동, 문제점 등 조사의 개인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현장조사 일지와, 그 경험을 이론적 맥락 위에서 일반화하고 해석하는 분석·해석 노트를(Spradley, 2003:93) 매번 면접을 할 때마다 작성하였다. 추가적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모든 과정은 동일하였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는 2019년 2월 ~ 3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8명의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본 연구자는 인천 및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를 서구 다문화지원센터와 봉사했을 때 만난 학생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와 부모들에게 면접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한국어 구사력도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경험을 한국어로 연구자에게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지만,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사례도 배제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의 5명은 한국어로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원어민 수준에 가까웠다. 3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구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역자와 함께 베트남어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별로 1회 1시간~1시간 30분씩, 평균 2회의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미리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첫 인터뷰를 할 시에는 연구 참여자의 베트남의 생활에서 시작해서 한국인 새아버지를 만나게 된 과정과 가족생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두 번째 인터뷰에는 첫 인터뷰에서 살펴보기 못한 정보들과 학교 및 진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봉사 일지,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와의 카카오토티,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와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하였다. 이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은 연구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전화통화, 카카오토티 등의 비구조화된 면담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 3.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베트남 친 부모 아래 태어나 살다가 어머니의 한국인 배우자와의 재혼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1세에서 18세까지의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 7명과 현재는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고등학교 성인반 재학 중인 20세의 중도입국 청소년 1명 등 총 8명이다. 다음의 <표 3>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주요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이다.

〈표 1〉 연구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

가명 (나이)	성 별	가족관계 (나이)	한국인 새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재혼 시기	새아 버지 동거 여부	새아버지 와 동거기 간	국적 취득 (체류형 태)	입양 여부
황서연 (13)	여	새아버지 (55) 어머니(41) 남동생(6)	택시 운전사	도시락 포장(야 간근무)	6세	X <sup>2</sup>	1년 6개 월	O	X
웬단쑤언 (14)	여	어머니(37) 새아버지 (50)	회사원	공장	11세	O	8개월	F-1	입양 중
도티호영 (15)	여	새아버지 (53) 어머니(37) 남동생(3)	물류 승하차		11세	O	1년 9개 월	F-2	입양 중
조지우 (20)	여	새아버지(67) 어머니(42) <sup>3</sup> 여동생(12) 남동생(9)	무직	유흥 업종종사	8세	X <sup>4</sup>	7년	O	X
강민서 (18)	여	새아버지 (47) 어머니(40) 여동생(6)	건축 관련회 사	.	8세	O	1년 9개 월	O	O
전하은 (18)	여	새아버지 (48) 남동생(6)	전기시 공	작고 (2017)	11세	O	5년 1개 월	O	O
주영비엔 (11)	여	새아버지 (55) 어머니(40) 동생(임신 중)	버스기 사	.	10세	O	7개월	F-1	입양 중
응우엔티 록(13)	여	새아버지 (47) 어머니(36) 동생(임신 중)	철강관 련 공장	부업 (핸 드폰 부 품조립)	7세	O	8개월	F-1	입양 중

2) 한국인 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셨음. 현재는 어머니와 이부동생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 새 아버지와는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냄.

3) 부모님은 현재 별거 중. 지우는 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부동생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거주하고 있음.

4) 만18세 이후, 독립하여 살고 있음. 2019년 1월 한국인 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차이로 인해 별거 중에 있으며, 지우와 어머니 그리고 현재 한국인 새 아버지와 2명의 이부 동생이 따로 살고 있음.

연구 참여자 중 베트남 친아버지가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린 시절 친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여 해당 나이에 대한 기억을 자세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는 연구참여자가 여섯 살에서 열여섯 살 사이에 재혼하였다.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재혼을 알게 된 후 바로 재혼가족과의 바로 동거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적게는 1년 정도 많게는 8년 정도 베트남에서 조부모 혹은 친 아버지와 생활을 하였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한국 유학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한국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데려온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의 재혼 전 혹은 재혼 후 베트남에서 한국인 새아버지를 본 경험이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서 한국인 아버지와 생활을 한 기간은 최소 7개월에서 7년으로,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정도 한국인 새아버지와 생활을 하였다.

한국인 아버지는 한 명의 재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혼이었다.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는 적게는 열 한 살부터 많게는 스물 다섯 살 정도 차이를 보였다. 두 사례는 친어머니가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한 후에 중매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였으며, 세 사례는 베트남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세 사례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과 연애를 한 후 재혼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친어머니는 모두 베트남 출신 여성이다. 두 사례는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한 후에 중매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였다.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후 한국으로 귀화하였으며, 여섯 사례의 베트남 출신 친어머니는 결혼이민 비자(F-6)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 중이다.

연구 참여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된 후,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하은이와 민서가 해당된다. 둘째, 방문동거(F-1) 혹은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네 사례(웬단쑤언, 도티호영, 주영비엔, 응우옌티록)의 경우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의 친어머니는 결혼이민(F-6) 형태로 체류를 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연구 참여자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특별귀화를 한 경우이다. 두 사례(서연, 지우)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고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다섯 사례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베트남의 원가족 형제자매는 없으며, 그 중 세 사례는 현재 한국인 아버지와 친어머니 슬하의 이부동생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두 사례의 중도입국 청소년 친어머니는 임신 중에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이부동생은 최소 다섯 살에서 길게는 열 세 살까지 나이 차이가 난다.



베트남의 원가족 형제자매가 있는 도티호영의 경우에는 친언니가 베트남에서의 삶을 위하여 한국에 오지 않고, 외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다. 중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친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연이는 친어머니를 따라 베트남으로 왔으며, 친오빠는 친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의 직업은 무직이나 택시 또는 버스 운전사 혹은 물류 승하차, 전기 시공, 철강 관련 공장과 같은 직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인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친어머니의 직업은 도시락 포장과 같은 단순 업무, 유흥 업종 종사와 같은 직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두 사례의 경우 친어머니가 임신중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 한국에 입국 하자마자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여섯 사례(웬단쑤언, 도티호영, 민서, 하은, 주영비엔, 응우옌티록)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동거 중이다. 나머지 한 사례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한 후 다시 이혼을 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사례는 만 열 여덟 살 이후 독립하면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 IV.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이주 전 베트남에서의 삶

본 절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변화된 가족관계 및 생활에 대해서 살펴본 후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와의 관계 유형을 각각 살펴본다.

박혜준(2008)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족과의 분리와 해체, 재결합이 같이 동반되는 이주과정을 하나의 연속선상 위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각 과정을 분리하여 살펴 볼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한국인 새아버지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의 생활 및 친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1. 베트남에서의 가족관계 및 친부모님와의 관계 유형

###### 1.1 남겨진 자녀로서의 유소년기 (Left behind childhood)와 복합가족 경험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친어머니의 재혼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과 친어머니의 이주 이후 베트남에서 남겨진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는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차후 친어머니의 재혼 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배경이 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유소년기인 생후 3개월에서 일곱 살 사이에 친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베트남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그 중, 네 사례(도티호영, 지우, 하은, 주영비엔)는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친어머니와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다가 친어머니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서 베트남에서 외조부와 생활을 하였다. 친아버지와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경우는 두 사례(민서, 응우엔티록)이며, 이 사례의 연구 참여자들은 친어머니와 간헐적인 연락을 하고 지냈다. 나머지 두 사례(웬단쑤언, 서연)는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친어머니가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하여 베트남에서 조부모와 생활을 하였다. 베트남인 친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여 한국으로 오게 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친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이미 베트남에서도 복합적 가족(complex family)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의 가족관계 및 생활의 변화는 친부모의 이혼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친어머니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베트남에 남겨져 실질적으로는 부모 모두 없는 유소년 기를 보내며, 주보호자인 조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생활을 한다. 웬단쑤언이의 경우가 이렇하다. 웬단쑤언이의 친부모님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으며, 그 이후 친아버지는 친조부모와 떨어져 살고, 친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이 때문에 웬단쑤언이는 8년 정도 친부모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외할머니, 이모와 함께 베트남에서 지냈다. 이후, 주양육자였던 이모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주를 하였고, 외할머니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가시게 되자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친아버지와 함께 2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 친아버지와 생활하는 2년 동안 웬단쑤언이는 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였다. 어린나이에 친부모님의 이혼과 복합적 가족을 경험한 웬단쑤언이는 자신의 마음이 더 작아졌다고 말한다.

조금 어렸을 때 할머니 아 뭐야 [친]아빠 [친]엄마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조금 마음 어떻게 하지. 조금 작아. 작은거 같아요 (웬단쑤언, 통역)

7살 때 친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하은이의 경우,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외조부와 친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에서 지냈다.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주 한 후에는 외조부모와 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은이는 어려서 친부모님의 이혼을

모르고 생활하였다.

그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땐 뭐..6살..7살 때 친구들이랑 놀고 그럴 나이잖아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지냈어요(전하은)

친부모님의 이혼을 시작으로 복합적 가족경험을 하게 되고, 심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동시에,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도티호영은 세 살에 친아버지를 잃었다. 이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어머니 혼자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야 했기에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기억한다. 친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외할머니, 친언니와 셋이서 베트남에서 지냈으며, 도티호영에게 친어머니의 재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집에 돈이 없어서.. 음.. (침묵) (도티호영)

친부모님 이혼 이후 겪게 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연구참여자가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친어머니와의 분리를 초래한다. 서연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친어머니는 베트남인이다. 서연이는 중국에서 태어나 3년 동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살았다. 서연이가 세 살이 되던 해 친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친오빠는 친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서연이는 친어머니를 따라 베트남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 후 서연이는 여섯 살까지 친어머니, 외할머니와 베트남에서 셋이서 지냈다. 친어머니는 네살 때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하였으며, 2년 후 한국인 새아버지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재혼을 하였다. 그 후, 서연이는 베트남에서 위로 여섯 살 차이나는 사촌동생(친어머니의 여동생의 자녀)과 함께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서연이와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한 사촌동생의 어머니 또한 싱가포르에서 노동이주를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서연이에게 친어머니의 이주 이후 베트남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서연이는 농사를 한 외할머니를 따라 여름마다 일을 하였으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 하였다.

돈 벌려고, 베트남에서 힘들잖아요. 대부분 다 농사하거든요? 농사하면 돈이 안나오잖아요. 일해야하니깐 외국에 가서 일하고 그렇죠. 여름 되면 그거 다 해서 마당에 짝 하고, 그 계속 그 뭐지? 아무튼 몰라요. 이렇게 짝짝 굽어서 또 나가서 해야 돼요. 당분이 있어요. 제가 하면 다음에 동생이 하고(황서연)

열 살 때 친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주영비엔은 베트남에서 외조부, 외삼촌, 외숙모, 사촌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다. 주영비엔의 친어머니는 한국에서 돈을 벌며, 베트남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보내 주었다.

그 2년 동안 엄마가 한국에서 돈을 벌고, 돈을 베트남으로 식비랑 생활비 같은 것을 보내줘요(주영비엔, 통역)

친부모님 이혼 이후 친어머니의 재혼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경우도 있다. 민서와 응우옌티록은 베트남인 친아버지가 베트남인 여성과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생후 3개월에 친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민서는 친아버지와 함께 베트남 하이퐁에서 지냈다. 민서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친아버지는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였고, 한국에 오기 전 열 여섯 살까지 11년 동안 친아버지, 새어머니와 생활을 하였다. 친어머니와의 연락은 친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친어머니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서는 새어머니가 친부모 간의 관계를 오해할 까봐 친아버지를 통해 친어머니와 몰래 연락을 하고 지냈으며,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오해가 쌓여서 새어머니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다.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민서에게 그 때의 경험을 물었을 때, 민서는 대답을 회피하였으며, 자신과 새어머니의 성격이 맞지 않아 베트남에서의 가족생활이 힘들었음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괜찮은거 같은데, 오래 살아서 음.. [베트남인 새어머니랑]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오해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강민서)

친아버지가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재혼한 응우옌티록도 베트남인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응우옌티록은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다섯 살부터 열 두 살까지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친어머니는 일곱 살 때, 친아버지는 여덟 살 때 각각 재혼을 하였다. 친어머니는 재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응우옌티록은 베트남에서 친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베트남인 새어머니는 응우옌티록과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새어머니의 전혼자녀가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에 새어머니를 자주 보곤 했다. 친부모님이 이혼과 친아버지의 재혼을 경험한 응우옌티록은 베트남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했다.

그때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엄마아빠 이렇다 얘기하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그 학부모 모임이 있잖아요. 뭐 보통은 다른 친구의 경우는 아빠와 엄마가 와줬는데 저는 외할머니가 가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통은 아빠엄마가 그 갔다면 그 약간 과자 같은거 사주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슬펐어요(응우옌티록, 통역)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세살부터 여덟 살 까지 외조부모 손에서 자란 지우도 베트남에서 남겨진 자녀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우의 친어머니는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으며, 그 이유로 지우는 외조부와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였다. 지우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으며, 그 경험으로 인해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아빠 없는 애다 이런식으로 놀림 많이 받긴 했는데 근데 딱 [한국인 새]아빠 생기니까 별말을 안하고 [베트남인 친구]애들이 그냥 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았던거 같아요. 새 아빠다 어찌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웃음) (조지우)

이처럼 베트남에서의 복합가족 경험으로 인해 친어머니의 재혼과 한국인 새아버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한편, 친부모님의 이혼 및 부재로 조부모와 함께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것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기대하게 하지만, 실제 한국으로의 이주는 몇 년 동안 주 양육자였던 조부모를 떠나는 것을 수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응우옌티록은 자신이 한국으로 가게 되면 친할머니가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자신과 닮은 인형을 선물하였으며, 베트남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한 과자를 나눠주었다. 자신과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헤어짐을 준비하면서 응우옌티록은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한국에 있는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원하는 양가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응우옌티록이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했던 ‘준비’의 의미는 자신을 그리워할 친할머니와 친구들과의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덜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할머니, 베트남인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사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구요. 그때는 한편에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고, 한편은 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응우옌티록, 통역)

베트남에서부터 복합가족을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면 베트남에서 남겨진 자녀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친어머니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하여금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기대하게 하는 반면 주양육자와의 분리 경험을 유도하는 양가적 역할을 하게 된다.

## 1.2 친아버지와의 관계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친아버지와 베트남에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 대개 5년에서 10년 정도 오랜 기간 친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친아버지 및 새어머

니와 함께 생활한 두 사례(민서, 응우옌티록)의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친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 이들에게는 베트남인 친아버지와 한국인 새아버지 모두 중요한 존재이다. 그 외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거나, ‘무서움’, ‘낮쌌’ 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친아버지와 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친아버지와 연락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두 사례 (민서와 응우옌티록)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은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베트남에서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베트남에서 친아버지와 15년 동안 함께 지낸 민서는 한국으로 이주 할 때 친아버지가 입국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었다. 이에 민서는 친아버지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친아버지의 역할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매일매일 학교 다녔으니까 [친]아빠가 서류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 시간 없어서 [친]아빠가 그런 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강민서)

한국에 입국 한 이후에는 친아버지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다고 한다. 하고 후, 집에 돌아와 민서는 친아버지에게 전화로 학교생활이며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응우옌티록 역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 7년 동안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친아버지와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어머니가 친아버지와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여서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친아버지와 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친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유형과 친아버지를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유형은 친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이 경우는 세 사례(하은, 지우, 도티호영)이다. 친부모님의 이혼 당시 일곱 살이었던 하은이는 현재 친아버지가 누구와 어디서 생활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단순히 친 조부모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냥..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이혼했으니까 친아버지는 자기의 부모님 집에 살았을 것 같아요(전하은)

지우는 세 살 때 친부모님이 이혼을 하여서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더불어, 친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아버지의 자리는 언제나 빈

자리였다고 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때부터 친부모가 이혼하셔서 친부는 모르고, 친모만  
알거든요(조지우)

도티흐영이는 친아버지가 다섯 살 때 사별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어땠는지 기억나  
지는 않지만 친아버지의 사별 이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한다.

후자의 유형은 친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연  
구 참여자들은 태어나 한 두 번 만난 친아버지를 ‘무섭고’, ‘낯선’ 존재로 기억  
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 중에 세 사례(서연, 주영비엔, 웬단쑤언)가 이에 해당된다.  
주영비엔은 친아버지와 기억이 특별하지 않다고 말한다. 주영비엔이의 베트남인  
친아버지는 주영비엔이 태어났을 때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미등록 체류자로 일을 하  
고 있었으며, 다섯 살 때 처음 본 친아버지의 얼굴은 매우 낯설게 느껴졌으며,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다. 현재 주영비엔의 친아버지는 폐렴 치료를 목적으로 베트  
남에 와있으며,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할 건강상태로 인해 주영비엔은 친아버지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고 베트남에 있는 큰어머니를 통해 안부를 듣고 있다고 한  
다.

그 처음 어렸을 때부터 처음 아빠를 만났을 때는 나쁜 사람 느낌이 있었어요(주  
영비엔, 통역)

친부모님의 이혼과 친어머니의 한국 이주로 베트남에서 외할머니와 생활하였던  
웬단쑤언이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베트남에서 웬단쑤언이를 양육해 줄 사람  
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8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친아버지와 2년정도 생활한 웬단쑤언이는 8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어색하였지만, 친아버지가 잘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래서 [친]아버지 불러와서 얘기 그 때 [친]아버지[가] 잘 해줬어요 (웬단쑤언, 통역)

서연이는 세 살 때 중국인 친아버지와 헤어져 친어머니와 살았다. 그 후, 중국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의 입원으로 가게 된 병문안에서 친아버지를 만났다고 한다. 그  
당시, 10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의 첫인상은 무서웠다고 한다. 서연이는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친아버지가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렇  
지만 서연이에게 친아버지는 중국어를 하는 ‘중국인’ 이었다.

기억이 없거든요. 그때 [친]아빠를 처음 봤는데 한 단어가 기억났어요. 되게 무  
섭다.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황서연)

### 1.3 친어머니와의 관계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베트남에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며, 반대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친어머니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친어머니와 짧게는 1년 길게는 16년 동안 따로 떨어져 지냈다. 친어머니와의 분리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친어머니와의 관계는 중요하였다.

친어머니와의 관계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 참여자 중 네 사례(하은, 응우옌티록, 서연, 도티호영)가 이에 속한다. 하은이는 친어머니가 한국으로 입국을 한 후 부터 2년 동안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살 때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다. 또한 친어머니는 하은이가 베트남 학교에 입학할 때 책가방에 필통과 색연필 등 문구류를 넣어서 선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 하은이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과 통화를 해주는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신경을 써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은이가 열 네 살 때, 친어머니가 신장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으로 입국한 하은이를 한국시장에 데려가는 등 한국문화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냥 엄마가 같이 옆에서 안 살지만 엄마가 항상 통화해주고. 제가 뭐 입학할 때나 이런 거 약간 한국의 초등학교같이 가방에 연필이랑 필통 있고 색연필 있고 그런걸 보내줬어요. 그 엄마가 저랑 이렇게 멀게 살더라도 엄마가 항상 저를 신경써주고 관심 있게 해줘서 저도 괜찮아졌어요(전하은)

하은이에게 친어머니와의 관계는 물리적인 부재만 있었을 뿐 정서적인 부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부모님의 이혼 후 베트남에서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응우옌티록 역시 7년 동안 친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지냈으며, 친어머니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2년 동안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친어머니와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한다. 이후, 친어머니가 친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잘 돌봐 줄 것 같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오게 된 응우옌티록은 현재까지 친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전화해요. 2년 전에 그 전화기가 없었는데 그때는 [친]엄마가 친할머니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받았어요. 식사했냐고. 씻으러가라고 하고 언제 한국에서 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 할머니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응우옌티록, 통역)



도티흐영이는 친어머니와 2년 동안 떨어져 지냈으며, 친아버지의 죽음 이후 친아버지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던 친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중 친어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연이는 5년 동안 친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지낸 경우이다. 서연이의 친어머니는 서연이와 통화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여 보내주었으며, 노트북으로 친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을 데리러 베트남에 온 친어머니가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모습에 의지가 되었고, 이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해나갔다고 한다.

베트남어 까먹으면 안되잖아요. 엄마랑 말하면 더 베트남어로 말해야 되니까 까먹지 않을꺼 같아요. 아마도요. (황서연)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는 친어머니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부재하였으나, 한국 입국 후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이다. 본 연구 참여자 중에 두 사례(웬단쑤언, 민서)가 이에 해당된다. 베트남에서 외할머니와 친 이모와 생활한 웬단쑤언이는 베트남에서도 4년 동안 친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다. 웬단쑤언은 친어머니가 주부양자로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베트남어 밖에 하지 못했던 웬단쑤언이에게 친어머니는 소통의 창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베트남에서 여기서 저 애는 와서 친어머니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 조금 더 .. 옛날에 보다 좋았대요. 좋아졌대요. 왜냐하면 여기와서 딸 밖에 없었고, 엄마 저 옆에서 둘 밖에 없어서. 그 베트남 여기 보다 좋대요. 왜냐면 옛날에 [외]할머니 있으니까 엄마 애기 잘 안봐요(웬단쑤언)

베트남에서 친아버지와 살았던 민서의 경우도 비슷하다. 민서는 만 0세 일 때 친부모님이 이혼을 하였으며, 그 이후 친아버지와 살았기 때문에 친어머니와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리되었던 경우이다. 세 살이 되던 해, 동네 주민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친아버지를 통해 친어머니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이혼한 친부모님의 사이를 오해할까 봐 친아버지를 통해 친어머니와의 연락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이후, 친어머니가 한국으로의 입국을 권유하자 흔쾌히 승낙한 민서는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네. 이혼했을 때. 그 ..새어머니.. 베트남 새어머니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강민서)

세 번째는 베트남에서 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았으나, 한국에서 자신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는 친어머니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이다. 본 연구 참여자 중에

두 사례(주영비엔, 지우)가 이에 해당된다. 주영비엔의 경우, 친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여 한국에 들어온 이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다. 주영비엔이 열 살 때 친어머니와 분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이었으며, 한국에서 이부동생을 임신한 친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으로의 입국을 준비하는 동안 주영비엔은 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집 근처 놀이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등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한 친어머니는 임신기간 내내 활동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여 한국인 새아버지가 제안하는 외출에 여러 번 반대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그때마다 주영비엔은 친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지만, 친어머니가 유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심심하고 그때는 여기에 친구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했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 때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땐 엄마가 임신 중이었고 그 전에 몇 번 유산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주영비엔, 통역)

네 살, 다섯 살 즈음에 친어머니의 노동이주와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재혼으로 친어머니와 헤어져야 했던 지우는 친어머니와 2년 동안 따로 떨어져 지냈다. 지우는 베트남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기 동안 본인이 네 살, 다섯 살이었기 때문에 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외할머니를 통해 통화를 하였다고 한다. 지우의 친어머니는 한국인 재혼 남성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전혼자녀와 관계가 틀어지자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우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힘들어하는 친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지우는 자신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친어머니의 ‘중간 역할’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친어머니는 지우에게 “네 아빠는 그냥 새아빠다, 너 조심히 해야 한다”, “네 아빠랑 너는 친사이드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서 둘이 똑같냐?” 와 같은 말을 하면서 친어머니는 지우와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친어머니와 서연이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으며, 친어머니가 자신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한다.

아빠가 말씀하시면 엄마는 듣기 싫다는 그냥 너는 방에 가라. 그게 어릴때부터 부랑 모랑 많이 대화를 해야 이게 쌓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게 싫은 거죠. 그니까 내딸이니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ですよ. 근데 아빠는 내딸이던 네 딸이던 지금은 현재는 내 딸로 되어있고, 내 자식이다 이런거죠. 그

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엄마가 역할을 잘 못했던거 같아요(조지우)

이처럼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친어머니의 이혼과 재혼으로 베트남에서 친어머니와 물리적인 부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으로 친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국 입국 이후에는 선이주한 친어머니를 따라 한국문화를 접하기도 하며, 낯선 한국에서 유일하게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 2.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과정

연구참여자의 친어머니의 재혼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 친어머니는 경제적·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는 함께 하고 싶은 존재이다. 친어머니가 자신의 재혼을 연구 참여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에서부터 친어머니의 재혼을 알고 있었다. 이후, 한국인 새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는 친어머니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를 제안하자 이들은 바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한국으로의 이주를 미루기도 하였다. 이들은 각자 ‘친어머니와의 재결합’, ‘임신한 엄마를 돕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 등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연구 참여자는 이주를 하는데 있어 변화될 생활보다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티호영이는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베트남에 친언니(Full sibling)가 있는 경우이다. 친어머니가 도티호영과 배안(도티호영의 친언니)에게 한국으로의 입국을 권유하였을 때 도티호영만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을 하였다.

베트남에서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니는 베트남에서 살고 싶어했어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아요. 음.. (웃음)....(도티호영)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소망했던 주영비엔은 친어머니가 베트남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부터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만큼 주영비엔은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기다려왔다. 이후, 주영비엔은 친어머니와 베트남에서 연락을 하던 중, 친어머니의 임신소식을 듣고 친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하는 소식을 들어서 엄마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요 (주영비엔, 통역)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친어머니가 이주제안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아울러,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하이퐁, 하이증성과 같은 베트남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민서 역시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입국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하노이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민서는 하노이 한국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학교 조퇴를 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또한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민서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더욱 기대하였다. 민서의 따르면 :

저 한국에 아 오기전에 베트남에서 아 여권이랑 비자랑 어 다 만들었 다 그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야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어 오게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때는 너무 기대 했어서 그래서 한국에 오게 어 오게되서 너무 좋았어요. 저 한국 좋아해서 왔어요. (강민서)

연구 참여자 중에서 친어머니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제안하였을 때, 바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은이의 친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였으며, 그 당시 하은이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하은이는 외조부와 생활과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남기로 하였다. 이후, 베트남에서 4년 동안 외조부와 생활을 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던 하은이는 엄마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 한국에 오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싶고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때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 먼저 한국에 갔어요. [그 이후], 제가 그때 엄마랑 좀 멀게 사니까 엄마도 가깝게 엄마랑 같이 살고 싶고 또 다른 친구처럼 엄마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데려왔어요. 제가 가고 싶다 해서. (전하은)

이처럼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으로부터 이주 제안을 받았지만 베트남에서의 상황을 더 우선으로 두는 경우 한국으로의 이주를 미루기도 하였다. 한국으로의 이주 제안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아버지에 의해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응우옌티록의 친어머니는 한국에서의 ‘교육’이 베트남에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자신의 피붙이가 하나이며,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다. 응우옌티록 또한 베트남에서의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 때문에 베트남에 남기로 결정을 내렸었다. 친아버지가 한국으로의 입국을 반대하고 난 6개월 후, 베트남에서 친할머니 혼자 응우옌티록과 사촌 동생을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자 친아버지는 응우옌티록에게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을 권유하였다. 응우옌티록은 친아버지에 의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정하였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응우옌티록은 친어머니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지냈으며, 친아버지 보다는 친어머니가 자신을 더 잘 돌봐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정하였다. 그때의 경험에 대해 응우옌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원래 음..초5 정도는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친 아빠가 못 가게 해서 못 왔어요. 제가 원하고 또 엄마가 원하게 해서. 베트남에 있을 때 [친]아빠가 그냥 지키기만 했는데 뭐 많이 챙겨주지 않아요. 엄마가 여기로 데리고 와서 많이 챙겨 줄 거 같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같이 엄마랑 [한국인 새]아빠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친]아빠가 못 가게 해서. 그때는 [친]아빠가 음...그 딸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데리고 가면 아빠랑 살겠느냐 해서 저를 잡았어요. (응우옌티록, 통역)

응우옌티록의 경우, 비록 친아버지의 권유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발단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응우옌티록은 자신을 더 챙겨주는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소망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서연이의 경우도 비슷하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에 갑작스러운 엄마의 강요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방학기간에 한국으로 와야 했던 서연이는 베트남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에 왔다.

엄마가 베트남으로 여행 와서 저를 갑자기 저를 한국에 데려간다고 해주고 갔어요 그냥 갑자기 유학? 갑자기 유학이라고 하면서 그냥 데려 간 것 같은데요? [베트남인] 친구한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갔죠(황서연)

## V. 베트남 중도입국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형성

베트남에서 친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베트남인 친어머니가 한국인 새아버지와 재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기존의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의 맥락과 가족의 맥락이 중첩되어 있어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조혜영, 2012 ; 정의정, 김소연 2014; 고남정, 오성배 2016). 그렇지만 기존 연구가 지적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다. 물론 중도입국 청소년은 불안정

한 체류신분과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은 자신을 새로운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체류신분의 안정화를 가져다 주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본 절에서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만남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가족이 되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 1. 한국인 새아버지와 ‘첫’ 만남 : 나의 새아버지, 엄마의 새 배우자

본 연구에 참여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자신의 새 아버지’ 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엄마의 새 배우자’ 로 받아들인다. 친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으로 데려간 당시에 한국인 새아버지를 처음 본 서연이의 사례를 제외하고,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의 재혼 준비 과정에서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새아버지를 만나 본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친부모님의 이혼 이후, 베트남에서 조부모와 함께 생활을 했던 경우가 많다. 더불어, 친아버지와 생활을 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가족관계가 안정되지 못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어머니의 재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기억과 한국인 새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 [첫]느낌 조금... 아마 [한국인 새]아버지 그 재혼이 괜찮은 사람 같다 생각했어요. 그 때 뭐 그 어디 갔다 밥 먹으면... 자기 음식을 잘 챙겨주고 그러고 그랬어요. (웬단쑤언, 통역)

그냥 [한국인 새]아빠가 여기와서 베트남 와서 놀러가고 그 때도 저 지금 어린 이니까 그냥 마음도 편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한국 아버지 저한테 더 잘해주고 그래서 좋은 추억이었어요. (전하은)

그니까 그 당시는 마냥 좋았어요. 마냥 그때는 어린 마음이니까 (조지우)

그 저 그 베트남 옛날에 베트남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아빠가 베트남에서 자주 왔다 갔다 왔으니까 그때는 몇 번 봤어요. 몇 번 봐서 같이 밥 같이 먹고, 같이 놀러 갔으니까 그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요. (강민서)

한국인 새아버지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친어머니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부모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오거나 베트남에서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웬단쑤언이의 경우에는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한국인 새아버지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는 한국인 새아버지, 자신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챙겨주고, 같이 시간을 보

내주는 한국인 새아버지를 자신의 새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인 새아버지와와의 만남 이후 자신 또한 한국으로 이주를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자연스럽게 한 웬단쑤언이는 한국어 배울 준비를 하고, 한국인 새아버지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다.

한국어 배울 준비 하고, 그리고 마음 그 어떻게 새로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생각 많이 했다고 해요. 함께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그랬어요.(웬단쑤언, 통역)

친아버지의 죽음 이후 베트남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도티호영이가 한국인 새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고 이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데 고려 사항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티호영이는 친부모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한국인 새아버지가 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기대했다.

10년동안 아버지가 없어서 ..네.. 집에 돈이 없어서.. 엄마 [한국인 새] 아빠랑 살고 싶어요. (도티호영)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인 새아버지를 자신의 새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 나이에 경험한 친부모님의 이혼 혹은 죽음으로 불안정한 가족관계, 친부모님의 실질적인 역할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친어머니의 새 배우자로 받아들인다. 도티호영 외에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인용문을 보았을 때, 이들은 친어머니가 젊고, 이혼 했기 때문에 새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친어머니의 상황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엄마가 재혼하는 것도 저에게 특별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상관있기는 하지만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주영비엔, 통역)

엄마가 결혼하는데 뭐 엄마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 (황서연)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젊고, [친]아빠하고 헤어졌으니까 재혼하는 거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해(응우엔티록, 통역)

아빠가 알게 돼서 ‘네’하면서 순종했어요. 아빠니까요. 엄마 남편이니까 (강민서)

위의 사례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베트남에서의 생활 및 친어머니의 삶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새아버지와 재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 형성 과정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로 인해 한국 입국 초기에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전환이 된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만났을 때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였고, 한국에 입국하여 센터나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인 새아버지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소통을 하였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짧게는 7개월 길게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계를 형성하면서 한국어 구사력, 한국인 새아버지의 태도 및 직업, 친어머니, 또래, 친척 등 여러 의견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변화를 경험한다.

### 2.1 입국 초기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 언어 장벽 넘기

한국생활 초기에 중도입국 청소년은 언어로 인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연구참여자는 친어머니, 한국인 새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다른 세상’에 있었다고 느꼈다.

황서연 : 저만 다른 세상. 엄마랑 [한국 새]아빠랑 [한국인 친]할머니는 다른 세상이고 저만 다른 세상.

연구자 :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황서연 : 저만 한국어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엄마는 한국어 알잖아요. 거기서 생활했으니까 알겠죠 뭐. 저만 다른 세상. 엄마는 같은 세상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는 이쪽에 있고 저 혼자 저쪽에.

서연이는 베트남에서 한국문화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 한 채 친어머니를 따라 갑자기 한국유학을 오게 된 경우이다. 현재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지만 입국 초기 한국어를 몰랐던 서연이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한 친어머니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처음에 서연이는 구글 번역기로 한국인 새아버지와 대화를 했다고 한다. 서연이가 구글 번역기에 베트남어로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송출되는 한국어



음성을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들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때의 경험에 대해 서연이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구글]번역기로 대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말을 하고, 아빠한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한국말로 또 말하고, 번역하고. 아무래도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좀 그랬어요. 번역기 목소리로 아빠한테 말하는 거니까요. (황서연)

그냥 한국어를 몰라서.. 단어를 몰라서 표현하는 거 외에는 힘든 점이 없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인 새]아빠한테 들려줬어요. 그냥 말을 하시는테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서 답답하기만 했어요.(주영비엔, 통역)

번역기로 한국인 새아버지와 대화했던 경험에 대해 서연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담긴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음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서연이 외 다른 연구 참여자들 또한 한국인 새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한국으로의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나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국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민서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 위치한 외국어센터에서 2달 정도 한국어를 배웠다. 하지만 스스로 읽어야 하는 수업이 전부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다고 한다. 주영비엔은 친어머니가 베트남에 놓고 간 한국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하은이와 응우옌티록은 유튜브에서 베트남어 더빙으로 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모두 자신의 생각을 능숙한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은 서툴렀으며, 한국인 새아버지와 대화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한국인 새아버지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밥 먹었니?’, ‘학교 생활은 어떠니?’ 등의 대한 간단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언어소통으로 인한 에피소드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민서는 학교에 다녀와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학교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말을 오해하여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한국인 새아버지가 ‘밥을 먹었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민서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면서 밥을 두 번 먹었다고 한다. 인터뷰 당시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해주었지만 그때의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서의 따르면 :

[한국인 새 아버지가]그 밥 먹었냐고 밥 안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밥 안먹어도 밥 안먹었어요 그래서 오해했어요. ‘민서야 학교에서 밥 먹었어?’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웃음) (강민서)

하은이의 인용문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공통 언어의 부재가 한국인 새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해하는 것보다 [한국인 새]아버지가 말 할 때 제가 못 알아 들으니까 좀 한국 사람 좀 말이 좀 빠른 편이어서 제가 못 알아 들으니까 [한국인 새]아버지가 말을 혼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한국인 새]아버지가 큰 목소리여서 제가 듣기에 ‘어 나한테 혼나는 건가?’ 막 무섭고(전하은)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한국인 새아버지와 원활하지 않은 언어 소통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 힘들어 하였다.

## 2.2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 한국어 구사와 말걸기, 법적 가족 되기

먼저,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하다고 느껴진 시기가 언제 인지 연구 참여자에게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흘러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드러냈을 때 칭찬 또는 인정받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짧은 한국어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학교생활과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말해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곤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한국어 잘할 때부터? 한국어 알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말하면 막 엄마나 [한국인 새]아빠한테 자랑하면 ‘오, 잘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칭찬도 하세요(황서연)

아빠한테 ‘저거 뭐야?’ , ‘저게 뭐야?’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대답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나중에 까먹으면 질문을 던져요. 제가 아빠한테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해요. (전하은)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 한국어를 배우고 말을 거는 행위는 통하지 않는 대화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며, 새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아버지 경험 (Fathering) 과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하는 활동은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녀 경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인 새아버지와 새자녀로서의 관계의 전환점이 된다. 다음 인용문에서

공통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 만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잘 나타난다.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았을 당시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에 대해 물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 좋았어요. 영화 처음 보니까 좋았어요. [한국인 새]아빠가 먼저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말을 했어요. (도티호영)

한국어를 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적응에 힘들었어요. 처음에. [한국인 새]아빠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막 시장 데려가고, 막 어디 놀이터 데려가고, 놀이공원 이렇게 데려가 놀러 많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약간 작은 관심을 해주고 신경을 써줘서(전하은)

무뚝뚝한거 같아도 일일이 다 챙겨주려고 하고, 음 학교도 그렇고, 애들 지나 지금 동생들한테도 다 아빠가 다 알아서 했고, 음식도 아빠가 해주실 때 도 있고, 그니까 성교육이나 또 앞으로 인생교육이랑 장래희망교육 같은 것도 아빠가 일일 교육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조지우)

이런 활동이 쉬운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티호영이의 한국인 새아버지는 물류 승·하차 일을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이르면 오후 7시, 늦으면 밤 11시에 퇴근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하은이의 한국인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전기시공 업무를 맡고 있어서 새벽 7시 30분에 집에서 나가 오후 7시 이후에 퇴근을 한다고 한다. 무직인 지우의 새아버지 또한 간헐적으로 주변 친척들의 일을 도와주러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외의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인 새아버지 또한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강 관련 공사장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반면,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인 새아버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웬단쭈언이에 따르면:

보통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 어.. 자주 데리고 놀러 가는데? 근데 지금 안해서.. 네. (웬단쭈언, 통역)

웬단쭈언이의 경우, 한국인 새아버지가 초기에는 함께 꽃놀이를 가는 등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현재 매일 오후 8시 너머 집에 들어오는 한국인 새아버지를 보며 ‘특별함이 없는’ ‘보통의 관계’로 변모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의 [법적으로] ‘친’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입양된 중도 입국청소년은 한국 생활의 안정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한다.

이제 그.. 아버지 그 저희 친아버지도 계시지만,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친딸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저도 [한국인 새 아버지의] 친자식이 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전하은)

저 인천출입국에 많이 갔다 왔으니까 그 [한국인 새]아빠 데려가줬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 돈 내야 하면 아빠가 다 냈어요. 네. 그 서류도 [한국인 새]아빠 다 했어요. 저 그냥 공부 잘해서 면접 잘 봐야 해요. 그런 생각하고 했어요. (강민서)

연구 참여자 중에서 민서와 하은이는 입양 과정 중에 있는 네 사례를 제외하고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입양이 완료된 경우이다. 하은이는 한국인 새아버지를 ‘친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친딸’ 이라 표현을 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민서는 한국생활을 위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지원 및 입양서류 준비와 같은 행정절차에 도움을 준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감사함을 나타낸다. 결혼이주여성이 새로 형성한 가족 내에서 제한된 자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살펴본 오 외(2013)는 이주여성이 다른 국가 출신인 배우자의 언어를 배우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가족 내에서 출산 및 경제활동과 같은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새로 형성한 가족과 관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이주의 맥락과 가족의 맥락이 중첩되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자 한다.

### 2.3 관계 형성의 걸림돌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더불어, 한국으로 선 이주한 국제 재혼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연구 참여자의 친어머니의 영향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신뢰를 쌓는데 방해가 된다. 본 연구참여자 중 네 사례(응우엔티록, 웬단쑤언, 서연, 지우)가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 한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응우엔티록의 경우 주말에는 주로 자신의 방에서 핸드폰을 한다고 한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한국인 새아버지는 응우엔티록에게 핸드폰을 하지 말라며 화를 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 서운했던 응우엔티록은 베트남에 있

는 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새아버지는 화가 나서 응우엔티록의 핸드폰을 던져서 깨트렸다고 한다. 웬단쑤언이의 경우도 비슷하다. 친부모의 이혼 후 베트남에서 친이모와 생활을 하였던 웬단쑤언이는 현재까지도 친이모와의 관계가 제일 친밀하다고 말한다. 베트남인 친이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맞벌이로 늦게 퇴근하시는 웬단쑤언이의 친부모님 보다 일을 하지 않는 친이모와 평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인 새아버지는 자신보다 베트남인 친이모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생각했으며, 심지어 웬단쑤언이의 친어머니에게 친이모의 친자녀가 아니냐는 식의 발언도 친어머니에게 서슴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 그때의 경험에 대해 웬단쑤언이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 새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고 화내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트남 집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새아빠가 또 그것을 보고 화내서 쑤언 학생을 때렸어요(웬단쑤언, 통역)

둘째,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말이 통하는 다른 베트남인 중도입국청소년의 또래 경험이 개입되기도 한다. 때때로 한국인 새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또래 중도입국 청소년이 주위에 있을 경우, 그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연구참여자 또한 한국인 새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친구가 얘기해서 [한국인 새]아버지 뭐 그 엄마 딸이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다 믿지 말라고 그래요. 쑤언이 처럼 몇몇 아는 몇몇 여기 한국에서 엄마 결혼 하..한.. 한국사람이잖아요. 그 쑤언이 보다 그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친구 몇 년 일찍 왔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친구가 쑤언이한테 얘기 하다가 [한국인 새]아버지 새아버지 좋지 않다고 뭐 딸이[라고] 생각 안한다고. 그래서 쑤언이 그래서 아버지 지금 새아버지가 똑같은 마음일꺼요 (웬단쑤언, 통역)

웬단쑤언이는 평일에는 김포에 위치한 다문화 예비학교로 선정된 B 중학교에서, 토요일에는 김포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김포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 자신과 같이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새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친해졌다고 한다. 그 친구들은 웬단쑤언 학생에게 한국인 새아버지가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는다며 믿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 후, 웬단쑤언이는 한국인 새아버지 또한 그 친구들이 말한 것 같이 자신을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을 거라며 마음을 멀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렇듯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고, 부정적인 인식으

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한국인 새아버지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의 재혼 전 자녀 존재에 관한 거짓말은 연구 참여자가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즉, 친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을 할 시기에 연구 참여자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해당하는 두 사례(서연, 지우) 모두 친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지만 한국인 새아버지의 이해로 지금은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 서연이의 친어머니는 한국인 배우자와 5년 정도 함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연이를 자신의 친조카라며 한국에 데려왔고, 서연이는 친어머니의 집에 있는 가족사진을 보고 한국인 남성과 재혼을 하였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한국인 새아버지는 서연이를 베트남인 이주여성 배우자의 조카라고 생각한 채 한 두 달 함께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한국인 새아버지는 친어머니와 서연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였으며, 둘의 관계가 친모녀 관계임을 알고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그 상황을 기억하는 서연이는 한국인 새아버지가 자신을 이전처럼 똑같이 대해 주긴 했지만, 친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 관계가 틀어진 모습을 보며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었다고 한다. 하지만 곧 한국인 새아버지는 서연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느끼게 되었고, 서연이 또한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냥 뭐 잘하면 칭찬해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줘요. 똑같아요. 달라진게 없어요. 아직 그때 처럼 친절해요. 엄마랑 싸웠는데도 진짜 자기 딸도 아닌데.. 잘해주시니까 좋았죠. (황서연)

이처럼 한국인 새아버지가 재혼인 경우 이주여성 배우자가 재혼 전 전혼자녀를 숨겼다고 해도 그 상황을 이해하며 연구참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있다. 지우의 경우도 이렇하다. 지우의 친어머니는 재혼 당시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혼 자녀의 존재를 숨겼으며,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국인 배우자의 말을 듣고 지우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지우는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로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해주는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엄마가 속였거든요. 딸이 있는 걸요. 아 ‘난 딸이 있다. 그런데 보고싶다.’ 하니까 [한국인 새]아빠는 그 당시에 딸이 없으니까 많이 기뻐데요. 그래서 음.. 그래서 데리고 왔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니까 딸처럼 친딸처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조지우)

이처럼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친어머니의 거짓말과 또래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경험은 연구참여자가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가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인정받은 경우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 3. 한국인 새아버지의 존재 및 의미

#### 3.1 새로운 '친아빠'

본 연구의 네 사례(서연, 민서, 하은,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를 새로운 친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7년 정도 함께 동거를 하였다. 이 중 두 사례(서연,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인 새아버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오랜 기간 생활을 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한국인 새아버지는 '선생님 같은', '없어서는 안 될', '큰' 존재이다.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으로만 비쳤던 한국인 새아버지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적게는 서른 살, 많게는 마흔 일곱 살의 연령 차이가 나고 있다. 나이 차이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의 가부장적인 태도 및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춘기로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말한다.

아빠가 좀 가부장적이예요. 근데 챙겨주실꺼 다 챙겨주어요. 무뚝뚝한거 같아도 일일이 다 챙겨주려고 하고, 음 학교도 그렇고, 애들 지나 지금 동생들한테도 다 아빠가 다 알아서 했고, 음식도 아빠가 해주실 때 도 있고, 그니까 성교육이나 또 앞으로 인생교육이랑 장래희망교육 같은 것도 아빠가 일일 교육 해주시고 그랬거든요(조지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인 새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빠'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인연'이 아닌 '이어진 인연'으로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우가 그 사례이다. 지우의 한국인 새아버지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재혼을 할 당시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다. 친어머니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백을 했을 때 한국인 새아버지는 선뜻 자신에게 딸이 생겼다면 좋아했다고 한다. 또한 친어머니가 한국인 새아버지와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하라고 하였을 때도 한국인 새아버지는 '이어진 인연' 이라면서 베트남인 배우자에게는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지우에게는 안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에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가 친딸이 아닌 자기에게 “불편하지 않게 좋게 말하려고” 하고, “조심스럽게” 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다. 더불어, 친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을 신경 써주는 부분에 대해 과분하게 느꼈다고 한다.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었다.

없어지면 안되는 존재? 인거 같아요. 가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자리를.. 마냥 생각해봤는데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조지우)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 새아버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 준 존재이기도 하고, 이제는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게 해 주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서의 경우 또한 한국인 새아버지를 ‘친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도와주며, 자신의 꿈을 준비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한국인 새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 그 그 한국아빠가 너무 친절 친절하고, 착하고, 음.. 그 나쁜 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아빠가 음.. 저 많이 응원해줘서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저 앞으로 같이 살았으니까 그냥 잘 지내줘요. 음.. 아빠이니까 그 존재에 대해 그냥 존재 해야 해요. 그 친 아빠 생겼어요. (강민서)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친어머니와 사별한 이후 한국인 새아버지와 이부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하은이 또한 한국인 새아버지를 ‘큰’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큰’ 존재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네 이렇게 도와줘서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또 아버지가 집에서 엄마 그 빈 자리에 아빠가 채워주고, 아빠가 아버지지만 엄마역할이고, 아빠역할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동받고, 너무 감사하신 분이예요 (전하은)

하은이는 친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한국인 새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이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인 새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 자신에게는 한국에서의 적응을 도와주는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다.

서연이의 경우도 한국인 새아버지가 ‘선생님’ 같은 존재라 말하며 한국인 새아버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한국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음을 다음 인용문에서



드러내고 있다.

음.. 선생님 같은 느낌? (웃음) 어.. 모르는 단어 많이 알려주시고, 모르는 공부  
는 잘 안알려주시지만 아무튼 모르는 단어 많이 알려주시고 큼.. 어.. 제가 뭐지?  
잘못 말하면 그거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 그리고 그게 뭐지?  
반말 아빠한테 반말 좀 많이 한적 있거든요? 그러면 어른이 한테는 존댓말 써야  
해 높은말 써야해 얘기해 주세요. 네 나쁜점을 좀 고치려고 그런점을 좀 고쳐야  
한다 그런거를 많이 얘기해 주세요(황서연)

서연이는 일상 대화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나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핸드폰으  
로 찍어서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문자로 보내고 있다. 서연이가 안경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던 날 바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춰주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항상 걱  
정을 해준다고 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었다.

### 3.2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새아버지’

본 연구의 두 사례(응우옌티록, 주영비엔)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동거한지 1  
년이 채 안된 경우이다. 이 경우의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인  
새아버지와 호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채 안된 응우옌티록과 주영비엔의 경  
우이다. 응우옌티록은 한국인 새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입양 서류를 준비해주었을 때  
가 자신과 친하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한국인 새아버지가  
출근하는 것보다 늦잠잔 응우옌티록이 학교에 지각할 까봐 차로 태워다 주었던 경  
험들도 친밀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여기에 머물 수 있게 서류를 준비  
해 주셔서 (응우옌티록, 통역)

주영비엔 역시 한국인 새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 친밀감을 느낀다. 주영비엔이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된 계기는 한국인 새아버지가 주영비엔의 친어머니 앞에서 치마를 입고 유  
머스러운 춤을 추었을 때이다. 또한 주영비엔의 한국인 새아버지는 버스기사로 2교  
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주 스케줄이 달라 주영비엔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주  
영비엔은 한국인 새아버지가 근무환경 때문에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어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퇴근 한날 자신을 데리고 월미도를 갔을 때 친밀감을 느꼈다고  
한다.

[한국인 새아버지는] 좋은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주영비엔, 통역)

위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향후 어떠한 관계로 전환될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해준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고마움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자녀로서 새로운 가족 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 3.3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새아버지'

한국인 새아버지를 도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는 웬단쑤언 한 사례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참여자 중 한국인 새아버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동거기간은 약 8개월 정도로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이해한다. 웬단쑤언 이에게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와 의미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인 새 아버지]느낌 좋은 사람 느낌 있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그냥 어.. 미래를 위해서 그냥 하고, (웬단쑤언, 통역)

열 세 살 때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웬단쑤언이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웬단쑤언이는 한국인 새 아버지와 생활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으며, 현재 입양 과정 중에 있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웬단쑤언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부정적이지 않았다. 웬단쑤언이는 한국 입국 초기에 한국인 새 아버지와 꽃놀이를 가는 등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즐거웠다고 한다. 하지만 웬단쑤언과 한국에 거주하는 웬단쑤언이의 베트남인 친이모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한국인 새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웬단쑤언이의 베트남인 친이모는 베트남에서 웬단쑤언이의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베트남인 친이모는 한국으로 이주한 웬단쑤언이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 하고 있었으며, 웬단쑤언 역시 친어머니보다 베트남인 친이모를 심적으로 더 의지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인 친이모는 자신처럼 한국으로의 이주 경험을 겪은 웬단쑤언이를 위해 한국 관광지에 함께 다니면서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인 새아버지는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보다 베트남인 친이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새아버지는 웬단쑤언이의 친어머니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베트남인 친이모가 아니냐며 가족들에게 거들먹거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웬단쑤언이는 한국인 새아버지가 베트남인 친이모

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며, 한국인 새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 4. 새로운 가족의 의미 : 새로운 시작

일부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인 새 아버지와 관계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우에게 새로운 가족은 부족한 자신을 성장시켜 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기다려주는 버팀목이 된다. 지우에게 새로운 가족이 주는 의미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삶의 터를 시작하는 부분인거 같아요. 그 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참을 수 참을성도 기를수 있게 해주고 또 남한테 부족한 부분을 잘 못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는거 같고. 그냥 시작점인거 같아요. 그 가족이란게 그런거.. (웃음) (조지우)

베트남에서 부모 없이 유소년기를 지낸 지우에게 가족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된 공간이 되었다. 한편,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는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를 탐색하게 하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서연이와 응우옌티록에게 한국으로의 입국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따르면 :

새로운 시작과 즐거움? ‘난 이제 한국인으로 살거다.’ 하고 즐거운 인생에서 즐거운 추억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황서연)

그냥 한국에 오면 그 저의 인생을 좀 새롭게 새로운을 창을 열잖아요. 원래 저의 [베트남인] 친구도 오고 싶지만 못 오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요 (응우옌티록, 통역)

응우옌티록에게 한국으로의 입국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한다. 비록 자신과 같이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또래 친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응우옌티록은 친어머니가 한국인 새아버지를 만나 한국으로 온 것은 자신에게 있어 새로운 창을 연 열쇠가 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친어머니의 재혼을 이유로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점’ 이 되기도 하는 한국에서의 삶과 새로 형성된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다음 절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주자로서, 한국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 자

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

## VI.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동일시(Identification) 및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본 절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 학교에서의 생활, 한국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이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국가, 언어, 외모, 민족 등과 같은 범주와 더불어 한국인 새아버지, 또래 및 선생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의해 반영된 의견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는 이주와 가족관계 변화를 경험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Suarez-Orozco, 2000;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은 맥락적인 측면과 내재적인 측면이 구분되지 않고 나타난다. 즉, 관계 혹은 범주에 의해 규정되는 정체성과 중도입국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하는 정체성이 혼용된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분석적 범주로 본 브루베이커 & 쿠퍼(2000)의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맥락적이고, 범주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동일시(identification)’, 내재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로 나누고자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여러 층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지적한 기존 연구(박선웅, 우현정, 2013)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에 의해 국적으로 범주화되고, 한국인 새아버지에 의해 ‘친 자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관계가 규정된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다문화’라는 동일자적 차이와 ‘언어 및 외모’라는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 1. ‘한국사람되기’

국적에 의한 동일시(identification)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단순히 한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 시민권은 한국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과 가족과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입양과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류 신분의 안정과 가족으로서의 법

정 인정을 의미함을 발견 하였다. 아울러, 국제재혼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있어 입양은 법정 인정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심리적·정서적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가족으로의 편입과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람’이 된다. 대개 친어머니가 결혼이민(F-6)인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초기에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한다. 한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친자의 경우 방문동거(F-1)로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2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거주(F-2)로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5년에 한 번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에 의해 입양이 거부되거나, 입양 절차가 길어지면 이들이 한국에서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친어머니가 한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중도입국청소년은 친어머니를 따라 한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입양의 유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과 체류하고 있는 형태가 모두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체류신분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사례(웬단쑤언, 주영비엔, 응우옌티록)의 경우 입양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베트남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한 사례(도티흐영)는 거주(F-2)로 친어머니의 가족으로 초청되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두 사례(민서, 하은)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고, 특별귀화하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마지막 두 사례(서연, 지우)는 친어머니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연구 참여자가 한국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경우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 시민권은 ‘가족’, ‘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평생 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1.1 한국 가족으로의 편입

입양 과정 중에 있는 연구 참여자는 네 사례(웬단쑤언, 주영비엔, 응우옌티록, 도티흐영)의 경우이다.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어려우며, 미성년 자녀와 한국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로의 입양이 필수적이다. 이 입양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의 입양 동의가 있어야 이주여성의 전혼자녀를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새아버지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응우옌티록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외국인 신분으로 입양 과정 중에 있다. 현재 한국인 새아버지는 응우옌티록을 입양하는 것에 동의 하였으며, 베트남과 한국에서 각각 입양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양 관련 서류<sup>5</sup>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응우옌티록의 한국인 새아버지는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양 관련 행정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야 할지, 혼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철강 관련 공장에서 근로하시는 한국인 새아버지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업체 섭외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우옌티록에게 입양 과정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여기에 머물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응우옌티록, 통역)

이렇듯 응우옌티록은 한국인 새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입양을 위해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응우옌티록과 같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국적이란 한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이며,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웬단쑤언에게 한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입양이 서류 다 된다면 기뻐요. 기뻐서 같네요. 왜냐면 여기 [베트남인 친]이 모 오래 지낼 수 있고, 어.. 막 저기 오래 공부 이런거 잘 오래 더 있으니까. (웬단쑤언, 통역)

이처럼 웬단쑤언에게 있어 한국 시민권을 취득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

<sup>5</sup> 입양과정 필요 서류 : 1)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2) 친어머니와 관련 서류: 친어머니가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친어머니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3)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련 서류 : 범죄, 수사경력조회 회보서와 재산 관련 서류(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통장 잔액증명서 및 잔액이 있는 통장사본, 채무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및 2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친양자로의 입양의 의미는 ‘가족’ 과 오래 지낼 수 있고, 한국에서 체류 걱정 없이 ‘공부’ 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친어머니와 동거 비자로 거주를 하면서 한국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과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혹은 국가 공인자격증의 취득 여부에 따라 취업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취업이 어렵고, 생활에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 한다.

아울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체류 신분의 안정화를 통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영비엔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항상 한국인 새 아버지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였다. 한국인 새아버지는 출입국관리소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영비엔에게 때때로 힘내자고 응원을 했다.

아빠가 계속 화이팅이라고 메시지를 많이 해줬어요. [한국인 새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건 알아들었어요. (주영비엔, 통역)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시민권 취득은 가족 모두가 매우 기다리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중도입국 청소년은 배우자의 전혼자녀인 동시에 곧 자신의 친 자녀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입양허가의 유무는 한국인 새 아버지에게 중요하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신분 안정은 연구 참여자의 친어머니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국제 재혼가정 안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주자로서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 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의 결속력을 다져준다는 의미도 지닌다.

한편, 거주(F-2)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라면 영주(F-5)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자녀로 입양이 된 중도입국 청소년은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F-5) 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 체류기한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친어머니의 가족으로 초청받은 도티호영이는 거주(F-2) 자격을 부여 받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현재 도티호영이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입양 및 특별귀화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sup>6)</sup>하는 중이다.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도티

---

<sup>6)</sup> 1)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 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가족관계 통보서, 여권 사본 1부, 본국 신분증 사본,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양경위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아버지의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흐영이의 친어머니는 연구자에게 거주(F-2) 자격 카드를 직접 보여주었으며,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또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렇듯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새로운 가족 내에서의 인정을 의미한다. 반면, 베트남 국적만을 가진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아직 한국에서의 체류신분이 불안정하며, 입양 과정 중에 있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한국에서의 체류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1.2 한국인 새 아버지의 입양을 통해 재혼자녀로서 한국 시민권 취득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총 네 사례이며, 각 두 사례(민서, 하은)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입양을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두 사례(지우, 서연)는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은 되지 않았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고, 특별귀화하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총 두 사례(민서, 하은)이다. 이 두 사례 모두 법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가족 내에서 자녀로서 인정을 받아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후 특별귀화하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법정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 새아버지가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신분등록부에 등재가 되면 만 20세 미만 자녀를 국내에 입양할 수 있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이 된 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특별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열 여덟 살인 하은이는 열 세 살 때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후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그 후, 하은이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로의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귀화시험을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전혼자녀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으로의 귀화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방문동거(F-1) 자격의 체류기한은 2년이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 2년만

---

2) 특별귀화 신청시 수수료 : 30만원



다 베트남에 방문해야 한다. 이처럼 결혼비자 형태로 한국에 체류하는 친어머니의 자녀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불안정한 체류를 의미한다. 하은이에게 입양 과정 및 특별귀화 경험의 의미는 한국에서 평생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입양과 특별귀화를 통해 체류신분의 안정을 가지게 된 하은이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은이에게 한국 시민권의 의미는 한국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체류신분의 안정을 의미한다.

저도 자랑스럽고 뭔가 좋았어요(웃음). 한국에 살다보니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국적시험보기 전에 법이 점점 바뀌어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국적 취득 못하려면 법이 어려워서 뭐 한국에 몇 년? 아니면 왔다 갔다 해서 연장하거나 그런 것부터 해서 차라리 귀화한 사람보고 [한국]국적을 따면 한국에 평생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하은)

하은이와 같이 입양과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한국에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권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다. 열 여섯살 때 한국에 온 민서는 열 일곱살 때 법적으로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양자가 되었다. 현재 열 여덟살 인 민서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양자가 된 후 특별귀화하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민서의 따르면 :

한국에..앞으로 한국에 오래 살고 싶어서 한국국적을 만들어야 해서 그래서 한국 국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강민서)

위와 같이 한국인 새아버지에 의한 동일시(Identification)는 새로운 가족 내에서의 법적, 심리적 인정을 의미하며, 국적에 의한 동일시(Identification)는 국제 재혼 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규정 됨을 의미하기도 하며, 체류신분의 안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 1.3 한국시민권을 취득한 친어머니의 자녀로서 한국 시민권 취득

한국인 새아버지에 의한 동일시(Identification)는 이주여성 배우자의 전혼자녀이며, 국적에 의한 동일시(Identification)는 한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이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한국인 새아버지의 입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친어머니가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에 명시되어있는 ‘수반취득 관계’란에 표시를 하면, 만 스무 살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친어머니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귀화자의 자녀’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특별귀화 대상이 된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8년이 된 지우의 경우가 이와 같다. 현재 스무 살인 지우는 여섯 살 때 입양을 준비하다가 입양 관련 서류상의 문제가 생기자 친어머니와 함께 귀화를 신청한 경우이다. 지우는 친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가 재혼하여 1년 정도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 한국에 왔다. 이후, 한국에서 2년 정도 한국인 새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입양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대사관에서 입양에 필요한 서류 중 국적 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여 주면서 한국에서의 준비시간이 오래 지체 되었다. 그 당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던 지우는 2년의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베트남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부동생 두 명과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지우는 열 세 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하였으며, 친어머니와 함께 귀화를 신청하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지우의 사례를 보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우에게 한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적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국인 새]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한국 국적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솔직히 그 [한국]국적을 받는다는게 쉬운건 아니잖아요. 그게 막 베트남이랑 연결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나라에 [베트남]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한국국적 따려면 어려모로 걸차가 이게 좀 많아요. 제가 국적을 받게 된게 1년 넘는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 중간에 금액도 그렇고, 시간 투자고 엄청 많고, 여러 번으로 싸움질도 났었고. 이게 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국인 새]아빠가 다 해주시고, 일일이 다 찾아서 일일이 다 해주려고 하고 그니까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조지우)

지우의 인터뷰가 보여주듯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안정한 삶을 야기 하며,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한국인 새아버지가 입양 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입양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 및 경제적인 부분도 투자를 해야 하고, 입양과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sup>7</sup>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입양을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우는 친어머니와 함께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준 한국인 새 아버지의 도움이 “과분” 하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체류의 안정을 가지게 해준 한국인 새 아버지에게 “미안함”, “감사함” 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생활 수준이 베트남의 생활수준보다 높은 경우, 한국 시민권 의미는 보다 특별했다. 서연이는 친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혼

인귀화자의 자녀로 특별 귀화한 경우이다. 베트남 북부 하이증성에 거주하였던 서연이는 외할머니, 사촌동생과 함께 발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문구류와 같이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2시간 거리의 하노이로 이동을 해야 했으며, 경제적·시간적인 이유로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서연이는 한국으로 이주한 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종종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낮은 경제 수준에서 보다 나은 한국으로의 생활을 경험한 서연이에게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된다. 서연이는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으로의 귀화를 준비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고,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의 국적은 베트남인 이었다. 서연이에게 한국 시민권은 국적 및 법적 의미의 ‘진짜 한국인’ 이었다.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자녀로 심리적인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귀화를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진짜 한국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저는 [한국]국적 얻자마자 축하할 때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하면서 소리지르는 거요. 완전 신났어요. 나도 이제 한국인이다 하면서. 진짜 [말]했어요.(황서연)

## 2. ‘두 이름 갖기’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식 이름으로의 개명<sup>8</sup>에 의한 동일시(Identification)를 통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며, 자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받아들인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식 이름으로의 개명은 베트남 이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한국 이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모두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기 전까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비교적 발음이 어려운 베트남 이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면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

---

<sup>8</sup>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현지 발음(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성과 본을 그대로 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창성창본 및 개명 허가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여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동반하여야 한다.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대개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허가 결정문이 통보되면 1개월 이내로 등록지 기준 또는 주소지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10일~15일 사이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변경이 된다.

명을 한다. 아울러,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주어진 한국식 이름은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 자녀로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중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한 사례는 모두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네 사례(황서연, 조지우, 강민서, 전하은)이다. 이들 모두 한국인 새아버지, 삼촌, 친어머니와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한국 이름이 지어졌으며, 한국 이름이 생겼을 때 자신을 ‘한국인’ 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입국하여 베트남 이름 (Nhu quynh)을 가지고 생활하였던 하은이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베트남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베트남 발음을 한국 친구들이 발음하기가 어렵다 보니 하은이의 친구들은 하은이를 만날 때마다 베트남 이름을 기억 해주지 못했으며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 친구들이 하은이의 베트남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의기소침하게 된 하은이는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가서 보다 발음이 편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싶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인 새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의 의미를 담은 한국 이름을 지어 주었고, 창성창본과 개명신청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도 ‘전하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식 이름을 가진 하은이에게 있어 베트남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연락을 할 때 베트남 이름을 사용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베트남인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하은이에게 한국식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요. 베트남 이름이 Nhu quynh이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 이름이 뭐지? 뉴..뉴 이랬어요. 발음이 어려워서..음..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서운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이 가지고 싶었어요. [한국인 새]아빠한테 말했더니 하은이라고 지어 주셨어요. (전하은)

한국식 이름으로의 개명은 국적에 의한 동일시와 비슷하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한국인’ 을 의미한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베트남 이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름이고, 한국 이름은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살아갈 때 필요하다. 한편,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한국식 이름은 그저 한국에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며, 새로운 가족 안에서의 한국 이름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계기를 마련하는 도구가 된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이름으로의 개명을 한 민서의 경우도 비슷하다. 민서의 따르면 :

한국사람이 되서 그냥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한거예요. (강민서)

연구자가 2017년 센터에서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응우안이라는 베트남 이

름을 가진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었다. 민서는 2018년 12월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이 된 후 친아버지의 성인 ‘강’, 한국식 이름의 ‘민서’으로 개명을 하였다. 민서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삼촌(한국인 새아버지의 친형)이었으며, 삼촌은 기존 베트남 이름의 발음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른 가족들도 한국식 이름을 추천해 주었지만 민서는 삼촌이 지어준 한국 이름이 베트남 발음과 비슷하여 그 이름을 선택하였다.

여섯 살 때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 새아버지가 한국 이름을 지어준 지우의 경우도 비슷하다. 현재 스무 살인 지우는 한국인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한국인 새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지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일이 가장 특별하다고 말한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지우를 부를 때 베트남 이름(팜태이원느)을 사용하지만,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불리운 ‘지우’라는 이름은 지우에게 베트남이름 보다 더 친숙하다고 한다. 단순히 호칭으로의 한국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 한국인 새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에 의미를 지닌다.

베트남 이름보다 더 친숙해요.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온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우라고 부른거라.. 아빠가 지어준 거라 더 특별해요. (조지우)

연구 참여자에게 한국 이름으로의 개명은 한국인 새아버지의 자녀됨을 심리적으로 인정받는 시작점이 된다. 반면,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이름으로의 개명은 새로운 가족 내 갈등을 야기 한다. 서연이는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친어머니의 성을 따라 한국 이름의 성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한국 이름을 지을 때, 한국인 새아버지는 자신의 성을 따라 ‘정’ 씨로 창성창분을 하길 원했다. 그렇지만 서연이의 친어머니는 자신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인 ‘황’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서연이는 친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름을 개명하였으며, 한국인 새아버지는 자신의 성을 따르지 않은 것에 탐탁지 않았다고 한다. 서연이는 친어머니와 한국인 새아버지가 의미하는 한국식 성과 이름이 아닌 한국이름을 가지게 된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서연)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 이름은 자신의 이주배경의 비가시성을 의미한다. 현재 A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서연이는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베트남 출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또래 친구들이 베트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하고, 굳이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이라는 것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에 서연이는 한국 이름이 주는 의미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인”이며, 한국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 학교에서 “한국인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서연이는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언어나 외모와 같이 이주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이 비가시화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한국사람으로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를 한다.

### 3. ‘한국인처럼 살아가기’

#### 3.1 한국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 및 두려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 세 사례(서연, 웬단쑤언, 도티흐엉)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세 사례(조지우, 강민서, 전하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국에 온 지 8-9개월 된 두 사례(주영비엔, 응우엔티록)는 공립 다문화학교에 재학 중이다.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녔던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학교 일과와 한국 학교 일과가 다르다는 점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드러낸다. 베트남 학교의 경우,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오후 1시에 학교에 돌아와 4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이와 달리, 연구참여자들은 점심을 제공해 주고, 숙제를 적게 내 주는 한국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

한국이랑 달라요. 아침에 가서 점심에 끝나서 집에 가서 한 시간? 두 시간정도 집에 있다가 또 학교 가서 4시쯤에 끝나요. 초등학교는. 한국에서는 점심에 밥을 주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집에 갔다 와서 밥 먹어야해요. 귀찮아요. (황서연)

여기 교육이 베트남보다 좋아요. 숙제는 베트남보다 덜 주는 것 같아요. 원래 베트남에서는 주말에는 한 5페이지 숙제를 내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때로는 숙제가 없어요. (주영비엔, 통역)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가 베트남과 다른 한국 학교 일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국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한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한국 학교 생활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게 한다. 일반 중학교 입학 앞둔 웬단쑤언이의 경우가 이러하다. 열 네 살인 웬단쑤언이는 현재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입학을 준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경험이 없어 베트남에서 친구들과 놀러 갔던 기억을 자주 회상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다고 해도 친구들을 잘 사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진다. 웬단쑤언이에 따르면 :

어 고민이 지금 3월달 학교 들어가잖아요. 일반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친구 잘 되는지 적응 적응이 잘 되는지 고민이래요. 친구가 관계 또 좋을지 아니면

나쁜지 고민하고 있어요. (웬단쑤언, 통역)

한편, 또래 관계 뿐만 아니라 공부 역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초기에 가진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민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을 돕는 센터에서 1년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한 후 부친 B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입학하였다. 민서는 베트남에서와 같이 숙제가 많이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한국 학교의 수행평가나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 등이 많아 학교 생활에 대해 실망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강민서)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학교와는 다른 한국 학교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도 학교 생활과 또래관계 형성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또한 한국 학교에 대한 기대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학교 생활이 불일치 하면서 실망을 하기도 한다.

### 3.2 첫 환대와 언어 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무관심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나이대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와의 관계이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한국 학교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이 후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 학교에 간 날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서연이의 경우가 이렇다. 그 당시, 열 살이었던 서연이는 입학 첫 날 창문 너머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다고 한다.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서연이를 친어머니가 끌고 들어가 또래 친구들에게 인사를 시켰으며, 그 때 서연이는 또래 친구들의 눈빛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쉬는 시간이 되자 같은 반 친구들은 서연이에게 다가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칭찬 했다. 하지만 첫 날에만 이러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 후 서연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 [한국 학교]애들이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보고 ‘와, 한국어 잘한다’ 이려고 자기들끼리만 놀았어요. (황서연)

그저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으로 주목받아야 했던 경험은 서연이만 느낀 것은 아니다. 공립 다문화학교에 재학 중인 응우옌티록과 주영비엔은 원적교 체험 기간에 한국 학교에서 만난 한국 학생이 환호를 하며 이들에게 관심을 비추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래친구들은 연구참여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아서 연구참여자들은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인천시 논현동에 위치한 인천 다문화

학교는 기숙형 다문화 학교로, 중도입국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간의 위탁교육 과정으로 원적교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는 곳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공립 다문화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을 돕고, 원적교로의 복귀 전 원적교 체험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원적교 친구들의 첫 환대와 달리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야만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원적교 체험을 통해 느낀 “짜증”, “별로”의 의미는 처음에만 자신들을 반겨주고, 그 이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오는 것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

보통이요. 그 때 기분이 그렇게 별로고..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을 걸면 답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한국 학교의 얘기에요. 공립 다문화학교에서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공립 다문화학교보다 별로 안 좋아요 (응우엔티록, 통역)

낮설어요. 그 들어오자마자 친구들이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짜증나요. 그냥 엄청 짜증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쳐다보고 나중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 것이 별로 안좋아서. 처음에는 관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런 거 별로 안좋아요 (주영비엔, 통역)

### 3.3 또래관계에서 차별과 극복

연구참여자 중 네 사례(하은, 민서, 지우, 주영비엔)는 직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모두한국 학교에서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이주배경과 어눌한 언어와 같이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차별을 경험 한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또래친구의 차별에서 자신을 베트남 사람, 또래 친구들을 한국인이라고 이해한다. 현재 B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하은이는 처음 한국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친구들이 하은이의 어눌한 언어 때문에 비웃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은이의 따르면 :

보다 약간 제가 말..처음 왔을 때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 [한국]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웃으면서 그럴 때 기분이 좀 그런데...이제 차별하는 건 크게 없고 약간 작은 거 그런 거. 그때가 말 안 통하니까 저분도 나쁘게 그런 거 아니고. 아 이[한국]친구가 한국말 서툴고 말할 때 좀 웃기다 그런거 같아요. (전하은)

위와 같이 친구들이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실력에 의기소침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했다. 민서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알게 된 하은이를 통해 부친에 소개한 B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현재 열 여덟 살 인 민서는 한국에 온지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한국 학교에 입학하였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



여도 같은 베트남 출신의 중도입국청소년인 하은이와 함께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같은 학급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일면식도 없는 다른 반 같은 학년 학생이 와서 민서에게 ‘너 베트남 사람이라며? 너랑 안놀아’ 라는 식의 말투로 민서를 괴롭혔다. 하지만 민서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면 자신을 ‘나 베트남 사람인데 뭐’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무시했다.

아..그 한국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베트남사람이니까 한국말 못했으니까. 안 놀아주고..그런데 저는 그 친구 무시했어요. 관심 없어요. (강민서)

차별을 경험한 후 스스로를 베트남사람이라고 이해하면서 상황을 극복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새로 사귀 연구참여자의 친구가 다문화라는 편견을 가진 또래친구들에게 대신 화를 낸 경우도 있다. 중고등학교 모두 한국에서 지낸 지우는 사회문화적 편견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차별 받는 경험을 했지만 자신을 대변해주는 또래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경험 하였다. 또한 편견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건 연구참여자의 이주배경 때문에 아니라 편견을 가진 사람 자체의 미성숙함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편견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그 애들 진짜 화를 화를 내면서 그 대신 뭐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학.. 지금은 더욱 그럴 거예요. 쯤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부분? 근데 또 나쁜 시선으로 바라봐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냥 같은 토종 한국인이어도 그냥 애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막 말하는 경우 그런경우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조지우)

공립 다문화 학교에 재학중인 주영비엔은 원적교 프로그램에서 남자 또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베트남어로 또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어 영어로 대화를 한 주영비엔은 그 과정에서 또래 남학생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주영비엔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 놀림을 받는지 몰랐지만 그 때의 느낌은 불쾌했다고 한다. 이에 주영비엔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나쁜 말을 남학생에게 하였으며,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그 남학생들이 자꾸 비엔학생을 놀려서 그래서 그 비엔학생이 좀 [남학생들한테] 잔소리했어요. 다들 선생님한테 일러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남자] 친구들을 불러서 혼내요. (주영비엔, 통역)

위의 각 사례들은 차별에 대한 여러 반응을 보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차별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가족 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 또래관계에 의해 동일시(Identification)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4 나를 도와주는 새 친구에 대한 고마움

대부분의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자신보다 한 두 살 낮은 학급과 같은 반이 된다. 연구참여자 또한 자신보다 어린 또래 친구와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 연구참여자 중 한국 학교에서 2-3년 생활을 한 세 사례(하은, 서연, 지우)는 한교 입학 초기에 언어의 장벽과 이주배경으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 하였지만 현재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1년 동안 한국 학교에 다녔던 지우는 이주배경과 나이 상관없이 자신을 진정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낸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공백기를 경험한다. 이에 따라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 같은 반이 되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한국 또래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니까 제가 나이 또래에 비해서 학교를 늦게 가고, 그런데도 애들이 정말 성숙하고 이해를 하고 좋은 쪽으로 많이 봐라봐 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 사춘기 때도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근데 친구랑 있을 때는 맘 편했거든요. (조지우)

위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로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서연이와 하은이는 자신의 나이와 이주배경을 숨기지 않고,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간다. 서연이는 처음 한국 학교에 입학 하였을 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구가 없어 밥도 혼자 먹고, 등·하교 및 방과 후 활동 모두 혼자서 했다. 학년이 바뀌자 서연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함께 공원에 가는 등 방과 후의 시간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서연이는 이제 친구와의 의사소통을 할 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 모르는 것이 생기면 친구에게 먼저 물어보면서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

제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아빠처럼 가르쳐줘요. 두 명 중에 한명이 공부를 잘해요. 바둑 항상 잘해요. 상을 항상 타요. 공부 잘해요. 제가 역사를 되게 못 한단 말이에요. 개는 역사 잘해요. 항상 90점 이상이에요. 부러워요. 제가 한국역사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황서연)

새로 사귄 친구에게 연구참여자가 먼저 다가가 모르는 언어 의미에 대해 물어보

면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있다. 하은이의 경우가 이렇다. B 고등학교 3학년인 하은이는 학교에 처음 입학 하였을 때 자신의 이주배경과 가족상황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평소 하은이가 다른 학생과는 달리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하은이가 한국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던 해, 친어머니가 신장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일하는 한국인 새아버지를 도와 여섯 살인 이부동생의 등하교는 물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은이는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한 첫 학기부터 2학년 때 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친구들을 따로 만나지 않아도 또래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또래관계에서 오는 힘들음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현재 하은이는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짝꿍을 통해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냥 다들 이제 고3이니까 또 고1때보다 고3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짝꿍이 엄청 애기도 하고 좋았어요. 짝꿍이 도움이 되어주고, 학교생활이 편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전하은)

### 3.5 학교 내 문화적 각본

일부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처럼 살아가기 위해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 ‘반장이 되는 것’ 과 같이 문화적 각본을 마주하게 된다. 현재 A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서연이는 담임 선생님이 자신을 보통 애들처럼 대해준다고 한다. 서연이가 말하는 “보통 애들”은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라는 틀 안에서의 특별한 우대가 아닌 한국 또래 친구와 비슷하게 교육 및 훈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담임선생님이 보통 애들처럼 대해주는 것은 서연이에게 있어 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내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 때의 상황을 통해 또래 친구들로부터 안 좋은 각인이 찍히면 학교에서의 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서연이의 따르면 :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사는 것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황서연)

서연이는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이름을 가졌을 때 자신을 진짜 한국인이라 칭한다. 하지만 학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서연이는 한국인 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학교는 한국인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는 갈등의 장이다. 아울러, 중학교에 재학중인 국제 재혼가정의 중

도입국 청소년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적 각본을 의미한다. 하은이도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다른 외모와 낮은 성적으로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또래 친구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하은이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또래 친구들과 같이 비슷하게 화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하은이와 달리 하은이의 이부동생은 한국 출생 자녀이지만 다문화가정에 속한다. 이에 하은이는 자신의 일곱 살 이부동생이 이주배경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으며, 방과 후 한국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공립 다문화학교에 재학중인 응우옌티록은 다음에 있을 반장투표에서 꼭 반장이 되고 싶다고 감정을 드러내었다. 응우옌티록에게 있어 반장은 또래 친구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보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의미를 가진다. 베트남에서부터 반장을 해왔던 응우옌티록은 공립 다문화학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학교에서도 반장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그 [학교에서] 반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알면 좋아요(응우옌티록, 통역)

#### 4. 앞으로의 진로

본 연구의 여덟 사례 중 세 사례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모두 고등학생이며, 이들은 문화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두 사례는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주배경을 숨긴 채 “그냥”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한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이 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세 사례는 한국에서의 교육을 기회로 삼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사례는 베트남으로의 귀환이주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살아간다.

첫번째는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역량을 활용하여 베트남-한국의 문화 중개인으로 역할을 소망하거나, 문화 중개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하은, 서연이는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활용하여 통역사의 꿈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서는 두 언어를 활용하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하은이의 경우, 자신보다 먼저 한국에 선이주한 친어머니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친어머니와 한국문화를 잇는 문화중개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와서 친어머니와 재결합을 한 후, 친어머니와 함께 한국 편의점에 갔던 경험에 대해 하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엄마 따라 시장 갔을 때나 아니면 엄마가 [베트남어

로] ‘저기 편의점가서 뭐 사와 줄래?’ 그래요. 저도 그때 동생이 어렸으니까. 같이 편의점 갔다가 뭐 말 잘 안 통해서 그런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나는 진짜 공부 지금보다 열심히 해야겠다. 한국어를 똑바로 공부 해야겠다’ 했어요. 그때는 공부를 정보도 찾고 어디에서 공부해야하나 한국어 공부 하고 아 나는 공부 열심히 하려면 다음에 내가 통역사 직업을 하고 싶다. 왜냐 하면 그 직업은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가까이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게 언어라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서로서로 말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전하은)

하은이는 자신보다 2년 먼저 한국에 들어와 생활한 친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능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은이의 친어머니와 편의점 직원과의 대화를 들은 하은이는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후 하은이의 친어머니는 하은이에게 부친 여성문화회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으며, 하은이는 프로그램 내 진로 상담을 통해 통역사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어로의 소통이 원활한 하은이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는 문화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장래희망이 통역사인 서연이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제 통역사로 바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진짜 힘들구나. 직업이라는 게 다 힘들죠. 지금은 5개를 생각했어요. 일단 베트남어는 고정이고,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랑 일본어랑 중국어요. 배우려고요. 지금 5개 다 배워야해요. 베트남어 조금.. 한국어 하다보니까 베트남어 조금씩 까먹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 엄마랑 이야기하니까 한국어 조금 날라 갔어요. 영어는 베트남에서 공부했던 거랑 여기서 공부하는 거랑 다르니까 아직 따라잡기 힘들어요. (황서연)

한국에 온지 4년 된 서연이는 현재 한국에서 생활한지 7년 된 친어머니보다 한국어 구사력이 높다.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가 친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 서연이는 옆에서 친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베트남어로 통역을 해주었다. 이 외에도 서연이의 이부동생의 어린이집 활동비 결제, 장보는 일 등 친어머니를 대신해 역할을 수행한다.

민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 언어를 사용하여 뷰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을 가진 민서는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주 3번 미용학원에 간다.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 화장품을 접한 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을 가지게 된 민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민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2급 자격증을 가진 뷰티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유튜브로] 베트남 친구들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모르는거 다 설명하고 아 알려줬어요. 그 [한국] 편의점이랑 아 한국메이크업이랑 한국 고등학교에랑 한국 고등학교 급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려줬어요. 저 지금 어 한국 고등학교 급식 편집하고 있어요. 네. 내일 올릴거 같아요. 어제 촬영했어요. 학교에서. 네 (강민서)

2017년 6월부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민서는 126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처음에는 뷰티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촬영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취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00원으로 한국 편의점에서 뭐 먹지?’, ‘한국 설날 옷놀이 하기’, ‘한국 고등학교 졸업식의 모습’, ‘첫 번째 날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등의 주제를 가지고 민서가 직접 경험한 학교생활 및 가족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에서 민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함께 사용하며 말하고 있으며, 두 가지 언어의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도 민서는 연구자에게 다른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자신의 영상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자신과 같은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민서를 도와 주기 위해 한국인 새아버지는 민서가 유튜브로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제공하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구매해 주었다.

두번째는 자신의 이중언어 능력과 이중문화 역량을 활용한 직업이 아닌 “그냥”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하는 경우이다. 현재 스무 살인 지우는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14년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높은 한국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주배경에 대해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지우는 최근 취업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주배경을 숨기고 싶어 했다. 낮에는 A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지우는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취업을 하는데 해가 될까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취업을 하였다. 지우의 한국어 실력을 잘 알고 있는 주변 다문화지원센터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활용한 직업을 추천하지만 지우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면에는 혹시나 과거에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베트남과 한국을 여러 번 오간 기록이 취업에 영향에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을 가진다. 아울러, 어느 취업을 준비하는 또래 와 같이 시급이 올라가 아르바이트가 잘 구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다문화다 보니까 어 제가 [베트남-한국]왔다 갔다 거린 것도 있고, 언어능

력도 그렇고, 남부터 부족한 건 사실 이에요. 근데 그게 또 [이주배경을] 잘 살리면 또 좋은 쪽으로 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중]언어능력으로 같 생각이 없거든요. 물론 저에게는 그 두가 그니까 두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저랑 맞지 않는거죠. 제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조지우)

세번째는 귀환을 위한 진로탐색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 사례 모두 한국에 온지 7,8개월 정도 되었으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층에 속한다. 한국에 온지 1년이 채 안된 두 사례(응우옌티록, 주영비엔)는 각각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국에서의 교육을 기회로 삼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중이다. 다섯 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승무원을 보고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된 응우옌티록은 한국에서의 교육이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응우옌티록에게 베트남의 교육 보다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응우옌티록은 몸매를 관리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한 응우옌티록은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한국인 새아버지의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베트남보다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 있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우옌티록, 통역)

위의 사례처럼 어릴 때부터의 꿈이 이어져서 한국의 교육 기회를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중 제일 나이가 어린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더 넓은 안목으로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제일 나이가 어린 주영비엔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나 장래희망을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현재 베트남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이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 아직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길이 열어질 것 같아요. (주영비엔, 통역)

위와 비슷하게 한국에 온지 1년이 안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서의 교육을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베트남으로 귀환 이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웬단쑤언이는 한국에서의 교육을 기회로 삼아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그리워 하면서 베트남으로의 귀환 이주를 꿈꾼다. 또한 웬단쑤언이는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이다. 한국 입국 초기에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꿈꾸었지만, 현재 지속적인 언어의 장벽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모하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동시에, 한

국에서 생활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삶이 익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웬단쑤언이는 베트남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승무원의 꿈을 한국에서 성취하여 다시 베트남으로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베트남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도시에 살았던 웬단쑤언이는 친어머니 없이 외할머니와 살았던 삶을 그리워 하고 있다.

근데 생활이 베트남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한국]여기 심심하니까 뭐 어디 놀러 못 가고 그래서 그래요. 대화 안되니까.. (웬단쑤언, 통역)

## Ⅶ. 결론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친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주자이며, 동시에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되고,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 이전의 삶을 이해하고, 한국 입국 이후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가정의 청소년과 비슷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 특히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기존 연구에서도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들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새로운 가족 경험 속에서의 ‘아버지’ 위치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 속에서의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한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한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 그리고 가족관계가 한국에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에서의 삶,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관계 형성 과정,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베트남에서의 삶은 친부모님의 이혼과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복합적 가족(complex family)을 경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베트남에 남겨져 실질적으로 부모 모두 없는 유소년 기를 보내며, 조부모 혹은 친아버지와 함께 베트남에서 생활한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만남은 한국 입국 이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의 재혼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사례를 제외하고 이들 모두 한국인 새아버지와 ‘첫’ 만남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졌으며,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 체류 안정과 입양, 새로운 가족 내 가족구성원으로 편입이 될 때에는 자신의 새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친어머니의 삶을 고려할 때면 엄마의 새 배우자로 한국인 새아버지를 받아들인다.

둘째,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으로서의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했다. 베트남에서의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경우, 연구참여자는 친어머니의 이주제안에도 한국으로의 이주를 미루었다. 친어머니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는 심리적인 측면과 베트남에서의 경제적인 측면과 같은 베트남에서의 삶은 연구참여자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더 빨리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친어머니의 이주제안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의 빈자리’, ‘친아버지의 제안’ 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하는데 심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은 ‘친어머니와의 재결합’, ‘임신한 엄마 돕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 와 같이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셋째,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새롭게 형성하는 가족 중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 즉 상호인정의 관계 여부에 따라 자신의 존재 확인 및 한국 사회 적응에 차이를 보인다. 연구참여자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어울리고, 입양 및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인 새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의 체류를 도와준다는 면에서 한국인 새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주자로서 경험하는 언어의 장벽은 물론 한국으로 전 이주한 또래 베트남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험과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은 공통언어가 부재한 상황속에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한국인 새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존재를 확인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는 가

족 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정서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입양과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법적 관계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연구참여자들은 친어머니의 재혼과 입양 그리고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사람이 된다. 또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국 이름과 베트남 이름 모두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간다. 한편,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이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 경험은 이들의 또래 관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베트남과는 다른 일과를 수행하는 한국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온 또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며, 외모와 다른 언어 사용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한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차별을 극복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관계 변화로 맞이 한 베트남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둘로 나눌 수 없으며,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의 맥락과 가족의 맥락 경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기여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재혼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으로부터의 이주제안과 베트남에서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였다. 이주자가 출국 전 단계에서 여러 고난을 경험하고, 이주자가 되기까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게(Belanger & Hong, 2013) 연구에 참여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오기 전 친부모님의 이혼,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베트남에서부터 남겨진 자녀로서의 삶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이주제안과 베트남에서의 요구 안에서 이주자가 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에서의 삶 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친어머니와 재결합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 이주를 할 때 주체성을 가지고 이주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상당한 정도의 자발성, 능동성을 띤 주체로서의 행위를 통해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로부터 가족 내 심리적 인정을 받기 위해 언어 구사력을 향상하기도 하고,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등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가족 내에서 사용될 한국 이름을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심리적인 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언어만이 한국인 새아버지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관계성 관점에서 가족을 볼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관계가 아닌 가족 구성원 간 관계를 협상, 타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Yeoh et al, 2013; 김혜선, 2013; 이수진, 김현주, 2016)과 같이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언어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행위와 법적 가족이 되는 과정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재혼가족 초기에 새부모로서 가지는 권위와 권한이 부재하다는 지적(김효순, 하춘광, 2011)과 달리 국제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은 입양을 통해 심리적·법적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체류신분의 안정을 주는 역할로서 한국인 새아버지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이렇듯 한국인 새아버지가 입양을 통해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법적 내 새로운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 동시에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의 한 시민으로서 위치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여긴다.

이에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의 관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관계이며, 하나는 한국 체류 신분의 안정을 주는 법적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잘 드러나고, 후자는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아버지의 친 양자로 입양이 되고,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인 새아버지와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관계적인 측면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 이 안에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친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자’이며,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며, 동시에 ‘한국인’ 혹은 한국인이 되어가는 ‘청소년’이기도 하다.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배우고, 한국인 새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입양과 한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신분이 주는 안정을 기대하는 행위성을 보인다.

셋째, 학령기에 해당하는 국제 재혼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학교는 한국인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는 장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시민권과 한국식 이름으로의 개명을 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진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어적 차이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면서 한국인 처럼 살아가려 한다. 이민 청소년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본 오로조코(2000)가 이주청소년에게 있어 문화적 각본의 박탈, 부정적인 소셜 미러링이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국제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베트남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 새아버지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려움은 모든 국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중도입국 청소년을 나누어서 국제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삶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통계연구센터. (2018). <http://cesi.kedi.re.kr/index>
- 국가통계포털. (2015). <http://kosis.kr/>
- 국가통계포털. (2018). <http://kosis.kr/>
- 고남정, 오성배 (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4), 271-289.
- 고은혜, 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 김기현, 이재희, 홍혜미 (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44(1), 165-192.
-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9), 147-175.
- 김효순 (2007).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 65-86.
- 김효순 (2010). 새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0, 245-268.
- 김효순, 하춘광 (2011).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새부모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3, 137-168.
- 김혜선 (2015). 송금행위를 통해 본 가족관계의 협상과 딜레마. *가족과 문화*, 27, 202-232.
- 박선웅, 우현정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 되기. *사회이론*, (44), 211-258.
- 유순화, 정애리 (2017).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유형에 관한 Q 방법론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1), 67-97.

- 박혜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 99-129.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9.
- 서덕희 (2013). 이주민 집단에 따른 이주 배경 학생의 학교생활. *다문화교육연구*, 6, 23-58.
- 송민경 (2014). 중도입국청소년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재혼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5, 35-64.
- 안지영, 김지훈 (2014). 저소득층 국제재혼가족 전혼자녀(前婚子女)의 가족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족과 문화*, 26, 25-57.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 39-82.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수진, 김현주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임춘희 (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 79-102.
- 장인실, 서덕희, 이지현 (2012). 재혼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8(2), 143-175.
- 전은희 (2012). 모계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의 차이와 가시화에 대한 질적연구: 중소도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5(3), 83-112.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조혜영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Belanger and Hong. (2013). Becoming a Migrant: Vietnamese Emigration to East Asia. *Pacific Affairs*, 86(1): 31-50

Brubaker, R., & Cooper, F. (2000). Beyond “identity” . *Theory and society*, 29(1), 1-47.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An Annual Book Series*, 6, 7-36.

Grant McCracken (2005). *장시간 면담*. 이명선 외(번역). 서울 : 군자출판사.

Smith, A., Lalonde, R. N., & Johnson, S. (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004, 10(2) : 107-122.

Spradly, J. P.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박종흡 번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Suárez-Orozco, C., Todorova, I. L., & Louie, J. (2002). Making up for lost time: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41(4), 625-643.

Moore, A. M., & Barker, G. G. (2012). Confused or multicultural: Third culture individuals' cultural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4), 553-562.

Yeoh, B. S., Leng, C. H., Dung, V. T. K., & Yi'en, C. (2013). Between two families: the social meaning of remittances for Vietnamese marriage migrants in Singapore. *Global Networks*, 13(4), 441-458.

Visher, E. & J. Visher. (1996). “Stepparenting : Blending Family.” In H. I.

McCubbin and C. R. Figley(eds.).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 Abstract

###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between Korean Step-Father and Vietnamese Adolescent Immigrants

Young-eun Ju

Master' s Dissert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Jeehun Kim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tudies and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ajor

Inha University

This study surveys family relationship and lif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dolescents who had to move to foreign country because their mother' s remarriage to their new husband who are Korean. The subject for the study are adolescents who came to Korea because of their mothers' remarriage.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dynamics of relationship between those adolescents and their stepfather along with its formation.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Vietnamese adolescents who moved to Korea because of their mother' s remarriage.

The immigrant adolescent participants of this study experience a complex family as a result of their mother' s marriage to the adolescent' s stepfather. They experience another major change in their lives as they follow their mother to Korea and become an adolescent with a new Korean stepfa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who come to Korea as a result of remarriage of their mother are the decision-making subjects in the mutual conflict between the movement to Korea and staying in

Vietnam. Beginning with the divorce of their biological parents, the participants spend their early adolescence in the midst of being left alone in Vietnam as the mother leaves Vietnam for Korea, living with either their grandparents or cousins. During this moment, the participants experience various economic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resulting from the absence of the father, sometimes forming a familial relationship with a stepmother in Vietnam. In making decisions to move to Korea, the participants tend to accept their mother's request to move to Korea with them, or were afraid to leave the life in Vietnam and their grandparents, delaying their movement to Korea while reconsidering their priorities. In such circumstances, the participants convinced themselves with the expectations of moving in with their mother, helping their pregnant mother out, or having high hopes about the life in Korea.

Moreover, the adolescent participants tend to form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Korean stepfather with spontaneous and proactive behavior. As they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and converse with their Korean stepfather as they become a legal family, these participants formed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heir stepfather. These stepfathers also play a crucial role in providing psychological and legal stability for these adolescents. Except for a single case, all the first encounters with the participants and the Korean stepfathers were made in Vietnam, an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m as their stepfather and their mother's new spouse. The maintenanc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original family group and a negative experience with their stepfather affect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dolescents and the stepfather. The stepfather's role as a figure that provides for the stability of the family, as the one who will build a future together with the family is essential. Therefore, the role of the Korean stepfathers is important because only with their agreement the adoption of the adolescents are possible, and thus the adolescents can become legal children of their stepfather along with the recognition from their new family and establish their position within.

Third, school for the immigrant adolescents is a necessary place to learn to live in the society as a Korean. We observed that the immigrant adolescents experienced numerous conflicts during the formation of self as they faced language barriers and social prejudice. These adolescents who are of school age have mixed feelings of expectations about life in Korean schools, and fear

of peer relationships and school life. At schools, the participants receive a warm welcome from their peers from the first encounter. However, they experience lack of attention or discrimination as they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in Korean with their surroundings. In such circumstances, they endeavor to live like Korean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ecision for migration was the starting point of forming relationship with the stepfather. Another characteristic of this study is that family relationship was inspected by category of relationship the adolescents have with each family member, and this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way of comprehensive family relationship survey. However, since the number of subjects were eight individuals whose unique relational background is limited to new step parent from specific target country, the observat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dynamic cannot be the sample of generalized situation. It is my sincere hope that subsequent research which go beyo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so that additional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offer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who migrate into a different country due to their parent' s remarriage.

Key words : Family of international remarriage, Immigrant Adolescent, Family Relationship, Intermarriage Family, Adolescent.

##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 한국 입국 전의 삶 관련

1. 자신을 소개해 주실래요?
2. 한국에 오기전 베트남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나요?
3. 친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가족끼리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4. 베트남에서 친부모의 재혼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5. 친어머니가 한국인 새아버지와 재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6. 베트남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7.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만날(함께 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8. 입국 전에 새 아버지 될 분을 만나본 경험이 있나요?

### 입국 과정 관련

1. 한국은 어떤 과정으로 입국하게 되었나요?
2.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3. 한국인 새아버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나요?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4. 입양과정 혹은 어머니의 국적취득으로 국적이 자동 취득된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입국 후의 삶 관련

1. 현재 연구참여자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요?
2. 한국인 새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한국인 새아버지는 연구참여자를 어떻게 대해주시나요?
3. 한국인 새아버지를 대하기에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4. 한국인 새아버지를 대하기에 좋거나 즐거운 점 /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어떤 것인가요?
5. 한국인 새아버지와 언제 친하다고 느끼나요?
6. 한국인 새아버지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7.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거나 고민해결을 함께 한적이 있나요?
8. 현재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로 누구와 고민을 상의/의논하시나요? 누가 어떤 도움을 주나요?
9. 아버지(친아버지/새아버지)의 존재란 연구참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 인가요?
10.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11. 연구참여자에게 중요한/가까운 가족은 누구인가요?
12. 베트남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한국에서의 삶 관련

1.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 연구참여자의 삶에 있어 한국에서의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3. 연구참여자의 꿈은 무엇인가요?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4. 현재의 꿈 : 시기와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5. 베트남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는 학교생활, 공부, 성적은 어떠한가요?
6. 학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나이와 다른 학년에서 공부를 하는 경험은 어떠한가요?
7. 한국에서의 가족, 친구, 선생님, 다른 일반 사람들은 각각 연구참여자를 어떻게 대하나요? 혹시 차별 받거나 우대 받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나요?
8. 한국에서 바뀐 이름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